

문화만개

문화만개

(재)달서문화재단 소식지
2020. SUMMER
VOL. 11



문화만개 VOL. 11 2020. SUMMER

www.dscf.or.kr





PROLOGUE

PROLOGUE

갑작스런 바이러스의 침공이
은 세상을 멈춰 놓고, 흔들어 놓고, 바꿔 놓았다.

사람들은 집 밖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했고, 다른 이들과의 접촉에 예민해졌다.
길거리가 조용해지고, 가게들은 문을 닫고, 공연장도 전시장도 굳게 잠겼다.

무섭게 치솟던 바이러스의 위세가 한풀 꺾어지는 듯하자
사람들은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를 논하기 시작했다.
다시는 이전의 시절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예언과 함께.

그러나 돌아갈 수 없다는 과거에 집착하고 지나친 감상에 빠질 필요는 없다.
어쩌면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향한 첫 걸음을 이미 잘 내딛고 있을지도 모른다.
원치 않은 비대면의 구속을 통해 사람 사이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고,
인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디지털 기술은 발달의 원동력을 얻었다.

더 좋은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시대,
문화예술은 가진 장점을 최대한 내어놓아야 한다.



PROLOGUE

PROLOGUE

공원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공연장 공연을 무대에 올리더니, 제한적으로 관객을 입장시키기 시작했다.
비대면 무대의 공유도 여전히 활발하다.

달서문화재단도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장미꽃 꺾기(Feel) 무렵>의 공연 무대를 영상으로 공유했고,
24시간 열려 있는 웃는얼굴아트센터 <슬기로운 문화생활>을 운영한다.
하반기에는 신진작가 3인의 전시도 열린다.
대구 지역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도 마련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아카데미 등 교육프로그램들도 문을 열기 시작한다.

공원의 한가로운과 같은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지금,
함께하고 마주함의 가치를 되새기는 지금,
달서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더욱 부지런히 찾아낼 것이다.



CONTENTS

기획특집

- 08 **Special Theme I**
뉴 노멀이 다가온다.
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12 **Special Theme II**
온 세상이 멈춰 버린 듯 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 담론
- 18 **Special Theme III**
코로나19가 바꿔놓고 있는 대구 공연문화의 현장.
김봉규 영남일보 문화전문기자
- 24 **Interview**
3인의 신진작가. 김채연, 정진경, 신소영

Around

- 32 **도시의 기억**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난 클림트와 베토벤
- 38 **교차하는 시선**
다양한 자아 하나의 아름다움
- 44 **달서유람기**
두류공원, 여름날의 낮과 밤
- 50 **날아가는 흙씨**
「예술사 희망in 달서」 시네마 프로젝트
- 56 **Column**
노랫말을 다시 읽으며, 살아남음을 생각한다.
김노주 경북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Review

- 62 **축제**
2020 장미꽃 필(Feel) 무렵
- 68 **공연**
2020 신년음악회
- 70 **달서가족문화센터**
가족과 함께 마음의 거리는 가깝게
- 7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나를 위한 시간 내일(Job)을 만나다

Preview

- 74 **공연**
24시간 열려 있는 웃는얼굴아트센터.
슬기로운 문화생활
- 80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탁월한 동행 <코리아 윈드 필하모니>
- 82 **예술아카데미**
2020 여름 수강생 모집

2020년 VOL.11 비매품
ISSN 2384-373X

이 책에 실린 글과 그림은 서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화만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재)달서문화재단 문화정책실로
신청바랍니다.

문화만개

(재)달서문화재단 소식지인 '문화만개'는
문화예술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며,
그 문화의 향기를 이워가는
따뜻한 움직임을 담고 있습니다.

발행인 이태훈 (재)달서문화재단 이사장
발행처 (재)달서문화재단
대구 달서구 문화회관길 160(장기동)
별관 2F 문화정책실
발행일 2020년 7월 15일
기획 (재)달서문화재단 문화정책실
편집위원 허정우, 박영빈, 김만경, 황성아
디자인/제작 한국에드

뉴노멀이

글 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름이 되어 습기가 높아지면
수그러들 것이라는 예측도
보기 좋게 빛나가고, 오히려
가을이 지나면서 올 것이라던
2차 유행이 빨리 시작된 듯하다.

다가올다

전 세계적으로 K-병역이라고 극찬을 받고 모든 나라들이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하여 한때 많은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했다.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긴 했지만, 한국이 폭발적인 확진자 수 증가를 멈출 수 있었던 것은 온 국민 개개인이 부지런히 마스크를 사용하고, 손 씻기를 열심히 한 덕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마스크를 사용하면 아무래도 비말로 인한 전염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손 씻기를 통해 손에 묻는 바이러스가 얼굴이나 몸의 점막으로 감염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면서 하루 빨리 이 사태가 끝나 다시 이전의 사회로 돌아가길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적어도 당분간은 이전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느 바이러스보다도 전염력이 강한 것이기에 끊임없이 새로운 숙주를 찾아갈 것이다. 그 숙주는 무증상 감염을 비롯해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일상생활을 통해 확산되며 존재할 것이다. 숙주를 사망시킬 정도로 강력한 바이러스는 오히려 크게 확산되지 않는다. 코로나19는 적당한 치사율로 더욱 강력한 전파력과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독특한 바이러스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당분간
우리와 함께할 것이며,
완전히 예전 생활로 돌아가기까지는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코로나는 직접적 대면을 피해야 예방이 되므로 예전처럼 마주 앉아 미팅이나 회식을 하거나 직접 사람을 만나는 일이 줄어들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는 이미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놨으며, 우리는 그러한 변화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적 규범과 기준, 표준이 만들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외부로만 향해 있던 우리의 생활과 삶의 기준에 대해 돌아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인간의 정신은 의식을 통해 외부와 소통하고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을 처리해 왔다. 친구를 만나고 회사 사람들을 만나면서 모든 정신 에너지가 외부로 향해 있었다. 사회에서 인정하는 가치가 본인의 가치가 되었었고, 그것이 지나쳐 물질적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된 것이 이미 오래 전이다. 이렇게 인간의 정신이 외부 세계에 지나치게 치중되면서 스트레스와 현대인의 고질병인 각종 정신병에 시달리기도 한다. 실제로 외부적 가치에 자기 자신을 끼워 맞추는 것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남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좌절감 때문에 힘들어 하며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떠한
태도로

맞이해야 할 것인가!

외부와의 소통을 통해 활력을 찾고 행복을 느끼기도 하지만, 인간의 정신은 외부세계와의 소통만으로는 결코 완전치 못하다. 의식보다 방대한 자신 내부의 무의식과 교류해야 하고, 무의식이 추구하는 방향이 오히려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일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무의식과 대면하기가 겁이 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대할 것이다. 마주보기 힘든, 너무나 큰 고통과 트라우마와 대면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전 이런 작업을 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마주하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대신 명상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명상의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들도 많이 있다. 평소에 하지 못했던 독서 등을 통해 자신만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정립해보는 시간, 혼자 일기를 써보는 시간 등을 갖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다. 다른 사람이나 사회 전체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

뉴 노멀(New Normal)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야 하는 작업인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언제 올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현재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유일한 사실은 코로나 사태가 지속된다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앞으로 사회생활, 가정생활, 자신의 삶의 목표, 가치를 재정립할 것인가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것이다.

인간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다시 적응할 것이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급격하게 기존 질서가 파괴되어 가는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이 어떤 식으로든 안정화되어 다시 우리는 새로운 사회에 대해 균형(Equilibrium)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현재의 기준으로 보아서 더 좋은 방향이든 혹은 나쁜 방향이든 평형을 이루면, 사회는 다시 조용히 돌아갈 것이다. 필자는 그 동안 바깥으로만 향했던 정신 현상과 획일적인 사회적 가치에서 개인의 가치와 개인의 철학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생각한다. 서로 만나고 소통하고 직접적으로 감정을 교류하면서 살아가던 현재의 인간사회는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자신의 내부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너무 외부로만 향했던 정신 에너지의 방향을 바꾸어 볼 필요가 있다. 이것만이 앞으로 올 뉴 노멀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온 세상이



멈춰 버린 듯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 담론

글·사진 편집부 서순정

뉴욕 현대미술관(MoMA),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구겐하임 미술관과 런던 내셔널 갤러리와 테이트 미술관, 파리 루브르 박물관 등 세계 유명 미술관과 박물관이 문을 닫았다. 아트바젤 홍콩, 프리즈 뉴욕, 스위스 아트바젤 등 올해 개최 예정이던 세계적 아트페어와 비엔날레도 연달아 연기되거나 취소됐다. 칸 영화제 도 전 세계적 팬데믹을 피해갈 수 없었다.

미술관이 문제가 아니다. 세상의 거리가 다 조용해졌다. 언제나 관광객이 넘쳐나던 파리의 에펠탑 주변, 노란 택시와 인파가 뒤섞여 혼잡스럽던 뉴욕의 브로드웨이 거리도 비워졌다. 온 세상이 멈춰버린 듯 스산하고 오싹한 기운마저 감돌았다.

생존의 위기에 당면한 시기, 문화예술을 논하는 것은 세상모르는 한가한 소리일까. 인류는 전혀 새로운 기준의 시대를 맞이해야 하는 기로에 섰다. 이런 때야말로 창조적인 사람들의 창조적인 용기와 진취력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미래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창조할 기회를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은 가진 장점을 최대한 내어놓아야 한다.



최근에 들어간 내셔널 갤러리 워싱턴

코로나가 삼킨 것들,
 잠식된 문화예술계
 위기는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을 것인가

The Show Must Go On

코로나 사태로 공연계는 완전히 잠식됐다. 장르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공연장이 문을 닫았고, 예정된 공연들도 줄줄이 취소됐다. 탄생 250주년을 맞아 아쉽게 기획된 수많은 레퍼토리의 베토벤 연주가 무산되고, 전통과 역사를 이어오던 공연도 쉬어가야만 했다.

이러한 가운데 뮤지컬계의 거장 앤드류 로이드 웨버는 유튜브 채널 '더 쇼 머스트 고 온(The Shows Must Go On!)'을 개설하고 매주 주말 자신이 제작한 작품 한 편을 선정해 풀영상을 공개했다. 2011년 런던 로열 앨버트 홀에서 열린 <오페라의 유령> 25주년 기념 공연 실황은 엄청난 화제를 몰고 오며 유료 회원제 위주로 운영되던 디지털 콘서트 무료 개방을 촉발했다. 베를린 필을 비롯한 세계 유수의 단체나 기관이 이를 주도했고, 아티스트 개인의 온라인 공연도 이어졌다. 안드레아 보첼리는 부활절에 밀라노 대성당에서 콘서트를 중계했고, 피아니스트 조성진은 '피아노의 날'을 맞아 베를린의 집에서 깜짝 온라인 공연을 펼쳤다.

경계를 초월해 움직이는 미술관

미술계도 공연계 못지않게 휘청거렸다. 전시장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도 손발이 묶인 재난과도 같은 상태에서 전환을 모색하는 임계점을 맞았다. 페스트가 증세를 휩쓸고 지나간 후 예술은 오히려 일어버린 가치를 찾아 새로운 문화의 꽃을 피웠듯이 말이다. 물리적 장소라는 핵심 가치를 버리면 초월된 공간 속 다양한 경험의 공유 방식이 나타난다. 특정 장소에 가지 않아도 체험할 수 있는 예술적 가치가 부상하고 있다. 제레미 리프킨은 <소유의 종말>에서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닌, 그 가치를 추구하여 '접속'하는 시대에 접어들 것이라 했는데, 경제학자의 이 예언은 미술계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미술 작품을 구독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늘고 있고 대중친화적인 방법을 모색하며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미술계 역시 온라인 미술관 등 언택트 뮤지엄 열풍이 거세다. 서로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작가들이 협업해 온라인 전시를 개최하고, 드라이브스루 도록 나눔 서비스, 윈도우 갤러리 등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연결된 세계, 장벽 없는 위로와 희망

바이러스의 대유행이 인류의 생산과 소비를 더디게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등의 배출량이 줄어 대기의 질이 나아졌다. 인간이 자리를 비우자 생태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한결 맑아진 베네치아 운하를 유유자적 헤엄치는 대왕해파리가 등장하고, 팔라완에는 핑크해파리 떼가 출몰했다. 이것을 코로나19의 순기능이라 해야 할까. 오만했던 모습을 반성하고 자연을 깊이 이해할 기회를 제공했음은 틀림이 없다.

문화예술 환경은 어떠한가. 머지않은 미래에 인류는 어떤 문화적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것일까? 과거 영화 속 암울한 디스토피아적 2019년을 다시금 생각할 때만 해도, 이렇게 빨리 팬데믹 공포에 노출될 것이라 예측하지 못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위기를 외면해 왔고, 여태까지 그 위기를 모면해 온 것에 오히려 놀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 그림을 그리고 싶다. 더는 옛날 방식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거나, 돌아가기 싫어질지도 모른다. 변화의 파고는 문화예술계 전반에도 깊은 영향을 줄 것이다. 우리의 짐작보다 훨씬 더 촘촘하고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는 세상에서 세계인의 공감과 공유가 가장 이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분야 또한 문화예술계가 아닌가.

코로나 사태로 활성화된 온라인 예술 세상의 가장 큰 특징은 장벽이 없다는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을 논함에 있어서 코로나 디바이드(Divide) 즉 디지털 격차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늘 따라다닌다. 문화예술계 또한 자유롭지 않으나, 교육이나 의료계에 비하면 오히려 기존의 격차가 해소되는 측면이 더 부각됐다고 할 수 있다. 특정 계층의 향유물로 여겨지던 현장중심의 문화예술계 무대가 방구석으로 바뀌며 그 장벽이 사라지다시피 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관객과 아티스트, 기획자 등 모두를 충분히 만족시키지는 못한다. 감각적인 만족도가 떨어질 것이고, 기술도 아직은 부족하다. 그러나 어렵고 멀게 느껴지던 문화예술계가 대중 가까이 자리하게 된 것은 분명하다. 경제적 여유, 신체적 불편함이 더 이상 장벽이 되지 않는다.

뉴 노멀 시대 대응을 위한 논의가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중에 있다. 국공립 기관보다 훨씬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 프리랜서 예술가와 소규모 예술단체, 독립 예술단까지 아우르는 기시적 움직임으로 문화예술계 뉴딜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길 바란다. 위기 속 기회를 가려내야 할 것이다.



무밀집에 증계인 안드레아 보렐리의 공연, 밀라노, 대상당

코로나19가 바뀌놓고 있는 대구 공연문화의 현장

글 김봉규 영남일보 문화전문기자

코로나19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시켜주고 있다. 코로나19가 초래한 변화는 우리의 기존 상식을 깨뜨리고 있다. '일상'이 '비상'이 되고, '비상'이 '일상'으로 변하고 있다. 공연계에서도 이런 변화를 보게 된다. 무대 예술인들에게는 관객이 있는 무대에 서는 것이 일상이고, 공연을 좋아하는 사람은 공연 현장에 가서 무대에 몰입하며 즐기는 것이 중요한 일상 중 하나다. 그런데 이런 '일상'이 '비상'이 되고 있다.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을 관객 없이 펼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한 일인데, 지금 그런 일도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 적응하며 변하고 있는 대구 클래식 공연 무대의 사례를 따라가 본다.

거리두기 관객과 유튜브 생중계를 병행한 대구콘서트하우스
2020. 4월 콘서트
<대구콘서트하우스 제공>



관객 있는 야외무대 '오페라 갈라콘서트' <대구오페라하우스 제공>

코로나19 이후
첫 관객 있는 야외무대
‘오페라 갈라콘서트’(5.16)

2020년 5월 16일 대구오페라하우스 앞 야외광장에서 소박한 오페라 갈라콘서트가 열렸다. 대구오페라하우스가 코로나19 속에 조심스럽게 마련한 무대였다. 혹독한 코로나19 사태를 겪은 대구에서 처음으로 관객이 있는 무대로 진행된 이날 공연은 관객과 출연자, 공연 준비자들 모두 함께 호흡하는 무대의 소중함을 절감하는 시간이 되었다.

‘함께해요 대구! 오페라 광장콘서트’라는 제목의 이날 공연은 지휘자 황원구의 지휘 및 해설로 오후 5시부터 한 시간 동안 펼쳐졌다. 디오오케스트라의 반주와 대구오페라콰이어의 합창 속에 소프라노 류진교·주선영, 테너 배해산·조규석 등 지역 성악가 7명이 출연해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카르멘’, ‘투란도트’, ‘라 보엠’, ‘라 트라비아타’ 등

의 유명 아리아를 선사했다.

무대는 광장 바닥에 붉은 천을 깔 것이 전부였고, 오케스트라 단원 수도 많이 줄인 조촐한 무대였다. 그리고 지휘자와 단원들(관악기 연주자 등은 제외)도 마스크를 끼고, 맨 바닥에 띄엄띄엄 마련된 의자에 앉은 130여 명의 관객들도 마스크를 끼었다. 코로나19로 고생한 의료진과 소방관, 자원 봉사자를 중심으로 미리 예약된 사람들이 관객으로 참석하고, 입장 전 발열체크와 소독 등 철저한 방역을 거쳤다. 공연 중에 차량 소리 등 소음이 들려오기도 했다.

이런 낯설고 소박한 무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눈물 나게 감사하고 설레는 시간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출연자는 수없이 많은 무대에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날 무대는 이상하게 떨리기도 하고 설레는 마음을 가라앉히기 어려웠다고 털어놓았다. 무대에 서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그동안 모든 무대가 취소되고 다른 성악가들과도 함께할 수 없다가 너무나 오랜만에 무대에 오르니 정말 많이 설레었던 것 같다고 했다.

관객으로 참석한, 오페라를 좋아하는 한 의

사는 첫 곡이 연주되자 가슴이 찡해지더라고 이야기했고, 다른 한 관객은 얼굴은 미소를 짓고 있는데 눈에는 눈물이 자주 흘렸다고 말했다. 무대를 기획하고 준비한 대구 오페라하우스 관계자들도 코로나19 속에 공연을 준비하다보니 공연 자체보다 방역을 위한 준비 사항이 많아 이렇게까지 하여 무대를 열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날 관객과 출연자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며 역시 공연을 준비하고 관객을 맞이하는 것이 큰 보람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다. 이날 미리 예약하지 않고 와서 입장은 못한 채 주변에 머물며 아쉬움을 달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보면서도 오페라 애호가들의 무대 갈증이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성악가나 연주자들은 경제적 어려움만 고통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무대에 서는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이다. 오랫동안 무대에 서지 못하게 되면서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예술가들도 있다고 한다. 관객과 함께하는 무대를 최대한 마련하는 일이 중요함을 잘 알게 해준 시간이었다.



무관객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대구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대구콘서트하우스 재공>

무관객 생중계 대구시향 연주회(6.5)

6월 5일에는 대구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가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열렸다. 그동안 하던 대로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되었지만, 관객 없는 무대였다. 연주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베토벤의 '전원 교향곡'과 드보르자크의 '신세계 교향곡'을 연주했다. 언론사 기자와 피디 등 몇 명이 그랜드홀 2층 객석에서 연주회를 감상할 수 있었다. 물론 앞뒤로 충분한 거리를 둔 지정 객석에 마스크를 끼고 앉았다.

80명 정도의 단원들이 무대에 올랐는데, 현악기 연주자는 모두 마스크를 끼고 연주에 임했다. 그리고 무대 및 주변 객석 곳곳에 설치된 10대의 카메라가 관객을 대신했

다. 공연 시간이 되자 지휘자 줄리안 코바체프가 무대로 나왔다. 관객 없는 객석을 향해 인사를 하고 돌아서서 '전원 교향곡' 지휘를 시작했는데 뭔가 어색한 모습이었다. '전원 교향곡'을 작곡한 베토벤이 이런 연주회 광경을 본다면 어떤 마음일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연주자 중에는 답답한지 마스크를 턱에 걸거나, 제대로 껴다가 내리는 사람도 있었다. 무관객 연주회를 객석에서 감상하는 기자로서는 관객이 가득한 연주회와는 다른 분위기여서 더 좋은 점도 있었다. 근처에 관객이 없으니 훨씬 편안하게 연주에 집중할 수 있고, 악장 사이에 들리던 기침 소리나 휴대폰 벨소리 등 거슬리는 소음도 없었다.

15분간 휴식 후 '신세계 교향곡'을 연주했다. 편안하고 기분 좋게 연주를 감상하면서, 교향악단 연주회에도 '신세계'가 열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휘자나 단원들은 연주가 모두 끝났지만 관객 반응을 알 수도 없었다. 관객들의 박수도, 앙코르 요

청도 없었다. 텅 빈 객석을 향해 지휘자가 인사한 뒤 퇴장하고, 단원들도 바로 일어나 빠져나갔다.

대구시향 관계자들은 처음 겪는 생중계 무관객 연주회를 앞두고 이런 저런 준비를 하느라 고생이 많았던 모양이다. 당연한 일일 것이다. 휴식 시간에 보낼 영상 자료도 마련하고, 홍보에도 각별히 신경 쓰는 등 노력 덕분에 '신세계 교향곡' 연주 때는 900명 정도(총 접속자 5천682명)가 접속해 감상했다. 코바체프는 "무관객 연주회라도 오랜만에 하는 공연이라 기분이 좋았긴 하지만, 관객들과 호흡하며 연주하는 무대를 빨리 맞이하고 싶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관객과 유튜브 생중계 병행한 힐링콘서트(7.3)

7월 3일에는 대구콘서트하우스 2020 힐링콘서트가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열렸는데, 유튜브 생중계와 함께 소수 관객들(200명 정도)이 거리두기 객석을 채운 상태에서 진행됐다.

피아니스트 백혜선이 대구시립교향악단(지휘 줄리안 코바체프 대구시향 상임지휘자)과 함께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제1번' 중 1악장을 연주하면서 무대를 열었다. 배우 강석우가 해설을 맡아 진행했다. 강석우는 "관객들과 교향악단 단원들 모두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이런 무서운 콘서트는 생전 처음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휘자와 교향악단 단원들은 표정은 한 달 전의 무관객 생중계 공연 때보다는 훨씬 자연스러워진 모습이었다. 띄엄띄엄 앉아 있지만 관객들이 있고 그 박수 소리도 들리는 무대여서 자연스런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슈트라우스 2세의 오페레타 '박쥐' 서곡과 아리아 '친애하는 후작님'(소프라노 김정아) 비제의 '카르멘' 서곡과 아리아 '투우사의 노래'(바리톤 김동환), 주페의 오페레타 '경기병' 서곡 등이 이어졌다. 성악가들도 오랜만에 서는 관중 있는 무대라 설레는 것 같았다.

다음날인 4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피아니스트 백혜선의 리사이틀이 열렸다. 이 연주회도 200명만 거리두기 객석을 채우고 진행됐다. 전날과 달리 유튜브 생중계는 하지 않았다. 관객들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앉은 것 말고는, 처음 맛보는 온전한 기존 연주

회 분위기였다.

백혜선은 자가 격리 중에 이 연주회 출연 제의를 받고 너무나 반갑고 고마웠다고 털어놓았다. 백혜선은 드뷔시의 '영상 2권',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제21번-발트슈타인', 쇼팽의 '죽음곡'과 '녹턴', 라벨의 '왈츠'를 연주해 관객들을 감동시켰다. 앙코르 곡으로 리스트의 '위로'와 '사랑의 꿈'을 들려줬다. 한동안 연주회 무대를 갖지 못했던 세계적 피아니스트 백혜선이 코로나19 이후 고향인 대구에서 처음으로 온전한 연주회를 갖게 되어 너무나 설레고 고마운 마음임을 드러낸 각별한 무대였다.

코로나19 사태도 언젠가 끝날 것이다. 하지만 강석우가 말한 '생전 처음 보는 연주회'가 한두 번 접하는 것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고, 인간은 또 그 변화에 적응하는 존재니까 변화는 상황에 적응해 갈 것이다. 공연계의 이같은 '비상'이 곧 추억으로 남게 될 지, 한동안 '일상'이 될 지는 지구촌 인간에게 달려 있을 것이다.



BEFORE

THE
BEGINNING

새로운 연대를 그리다

글. 편집부 서순정 사진. 편집부 윤종현

6월 끝자락의 토요일. 달서문화재단의 2020 신진작가 공모에 선정된 세 사람의 작가를 만나기 위해 가장창작스튜디오를 찾았다. 두동실 아여쁜 구름을 따라 들어선 길에서 가진 편안하고 유쾌한 시간은 그날의 날씨보다 화창했다. 비자발적 비대면의 시대를 살게 되니, 사람 사이의 교류가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는 사실에 공감하는 현장이기도 했다. 1인 미디어의 전성기에서 유대감의 절박함을 깨닫는 아이러니는 사람의 귀함을 알게 하니, 이 또한 감사하다. 하반기 전시를 위한 모임 이후 세 작가가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두 번째였으나, 마치 오래 알아온 친구 같다. 산이 있고 물이 있는 곳을 사랑하는 공통점을 가진 세 사람의 미소가 해사하다. 달서문화재단으로 이어진 세 사람의 연대가 지역 예술계에 의미 있는 바람을 일으키길 기대하며, 그날의 이야기를 옮긴다.



수줍은 미소를 입은
자유로운 사색가

김채연 작가

꽃하면 꿀장을 보고야 마는,

아이 같은 열정

초등학교 시절 종이에 그림을 그리고 책갈피처럼 만들어 친구들에게 나눠주기를 좋아했다. 친한 친구들에게 선물하던 것이 입소문이 나 쉬는 시간이면 다른 반에서도 찾아올 정도가 됐다. 내가 그린 그림을 갖고 싶다는 말에 행복해 하는 스스로를 발견하며 그림 그리는 것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다.

“아버지께서 장미 그리는 법을 알려주셨는데, 한 회 한 회 더해질 때마다 조금씩 장미가 완성되어 가는 모습에 빠져서 몇 달 동안 내내 장미만 그렸어요. 그렇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생일 선물로 나무 이젤을 받고 방방 뛰었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이 같은 순수함을 그대로 간직한 것 같은 김채연 작가의 취미생활은 의외로 옛날 노래 찾아 듣기란다. 또래 친구들은 절대 모르는,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노래들에 푹 빠졌다.

“요즘은 정수리에 꽃했어요. ‘난 너에게’라는 노래가 특히 좋아요. 오래 전에 녹음된 노래 속 연주는 지금의 음질에서 나오지 않는 아련한 음색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살아보지 않은 시대, 그 시절의 감수성이 빚어오는 느낌이랄까요. 가사도 너무 좋아서 이 노래만 무한 반복 재생 중입니다.”

광고디자인을 전공하며 애니메이션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움직이는 것의 재미를 알았다. 습관처럼 낙서처럼 끄적임 캐릭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본 것이 시작이었다.

“영상 미디어라는 분야의 트렌디함이나 캐릭터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의 전달력을 높게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광고디자인과 영상의 접점을 저만의 것으로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고 싶어요.”

따뜻한 한마디 말을 건네듯,

위로가 되는 작품을 하고 싶어요

학교를 졸업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은 여러 모로 부족하다는 생각뿐이지만 크고 작은 전시를 통해 활동 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한다. 그중에서도 도예가 신중환 작가의 공방에서 보내는 시간은 특별하다.

“제 작업이 2D 위주여서 입체적인 것을 해보고 싶었어요. 캐릭터 심플 작업도 해보고 싶고요. 작업적인 부분 외에 인간적으로도 큰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에요. 상담사처럼 조언도 많이 해주셔서 시간 날 때마다 공방에 들르고 있어요.”

기분이 가라앉는 날에는 끝없이 생각에 잠기기도 한다. 그런 날이면 꼭 꾸게 되는 희한한 꿈. 그 꿈을 기록하는 꿈 일기를 꾸준히 쓰고 있다. 마흔 즈음에는 가향에서 살고 싶다는 김채연 작가. 산에서 불어오는 공기도 좋고 멀리 더 멀리 험참이 보이는 산이 너무 좋다. 컨테이너라도 빌려서 살고 싶다. 분필 드로잉, 동화적인 애니메이션 등 아이 같은 순수함으로 무장한 김채연 작가의 작품이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너머 깊은 사색과 지연을 벗하고픈 평온함 덕분일 지도 모르겠다.

“전시명 <I'm just me>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다소 어두운 면을 드러내면서 ‘나다움’을 인정하고 행복의 실마리를 찾길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관람하시는 모든 분들이 여러 날 속에서 ‘나다움’을 찾고 더 행복한 순간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심한 듯 용감하고,**무료한 듯 격렬한**

형제들이 모두 손재주가 좋았다.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부터 그 재능을 공유했고, 중학교 때 처음 가본 화실에서 선생님 그림을 일추 비슷하게 따라 그려내는 것에서 전에 없던 만족감을 맛봤다. 전혀 새로운 느낌이었다. 그렇게 시작한 그림으로 대학까지 갔다. "사실 점수 맞춰 선택한 것이 관화였지만, 배우는 동안 참 재밌었어요. 졸업 후에는 관화를 기반으로 드로잉, 설치 등 다양한 시도를 하며 그것을 다시 관화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순환적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상의 소재를 관화 기법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호기심, 신선함이 제 작품의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활동적이거나 도전적인 사람은 아니라고 평가한다. 늘 먹던 것을 먹고, 늘 가던 곳만 다니기 때문이다. 조용한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좋고, 혼자 보는 영화의 몰입감을 즐긴다.

"특히 처음 보는 영화는 꼭 스크린으로 본다는 원칙 같은 것이 있어요. 미술 작품보다 입체적인 영화는 나다니는 것을 즐기지 않는 제게는 간접 경험의 장구이기도 하죠. 반복적인 것에도 만족감을 크게 느끼는 편인데다, 이제는 에너지도 용기도 줄어들고만 있어서 영화는 영감의 도구로서도 중요한 것 같아요."

소심하고 무료한 사람이라 표현했지만 정진경 작가는 누구보다 겁 없고 도전적이다. 서울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활동 하다 대구로 돌아온 건 4년 전. 어떤 지 이방인 같은 기분이었다. 그래서 더 부지런히 자신을 알릴 기회를 찾고 있다.

"정신을 차려 보니 적지 않은 나이가 되어 있는데, 여전히 낯것으로 담비는 덕분에 이상한 시선을 받기도 해요. 그런 것은 상관없지만 소통의 창구나 방식이 다양해지면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덜 다듬어진 모습이라도 괜찮지 않아요?"

**오묘한 양면의 질감은
가진 대담한 도전자**

정진경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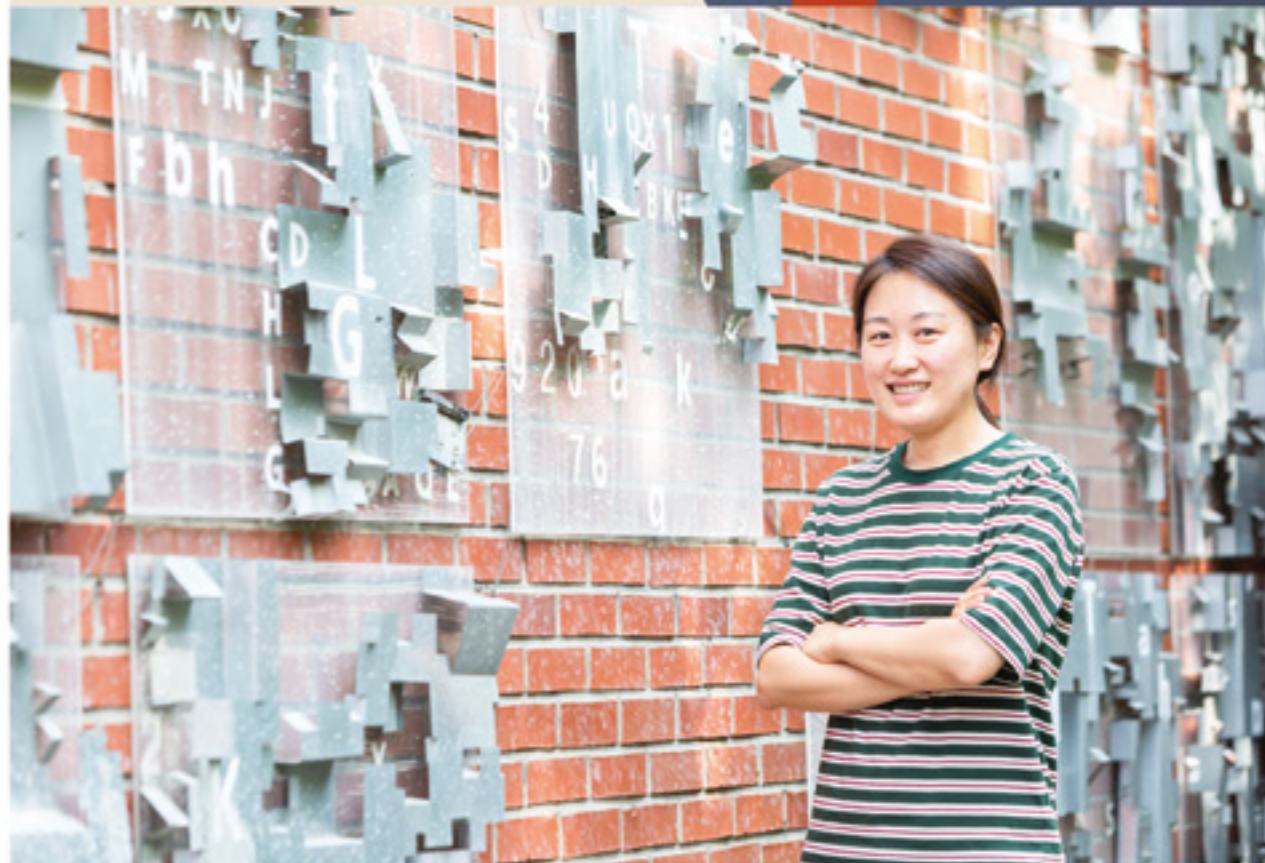
'정진경스러움'이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게**잘 살아야죠**

'보통사람'이라는 모임을 구성했다. 비슷한 시기에 대구로 돌아온 사람. 아이 낳아 기르는 10년 동안 경력이 단절되어 있었던 또 한 사람. 기질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의지하고 응원하며 교류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크게 관심 갖고 봐주는 사람도 없으니 눈치 볼 것도 없고, 그저 우리끼리 좋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재밌으면서도 어려워요. 열심히 하고는 싶은데 방법이 서툰 것일 테니 앞으로도 즐겁게 하려고요."

정진경 작가는 작년에 경험한 유리 상자 전시처럼 어려운 도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다. 현실에 만족할 줄 아는 동시에 개척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가까운 사람들이 그녀의 작품을 '너답다, 너스럽다'라고 평가할 때 가장 기분이 좋단다. 일상의 삶을 잘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8월로 예정된 전시는 '보통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평면과 입체작품을 아우를 예정입니다. <문화만개> 독자 여러분들을 만나 저 자신과 작품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행하며 사진 찍고 수집하는 행복한 방랑자

신소영 작가

옷 만드는 게 좋아 패션을 전공하고,

예술과 상업의 경계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다양하게 해볼 수 있게 도전정신을 응원해 주셨던 부모님 덕분에 어릴 적부터 이것저것 경험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미술 선생님을 많이 따랐고, 학교에 들어가서는 별 준비도 없이 나간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하면서 재능이란 것을 발견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옷을 만들어 보면서 디자인을 하고 싶어서 패션학과에 진학했는데, 마케팅을 전공했어요. 텍스타일 등을 대학 때 예술과 상업의 결합에 대해 생각하게 됐고, 그 경계에 서서 고민을 했죠. 그리고 이 문제를 표현의 방식으로 풀어나가 보고 싶어졌어요."

기본적으로 공간이 달라지는, 때로는 시간도 달라지는 여행을 좋아한다. 사소한 영수증 하나까지도 버리지 못하는 수집가이기도 한 신소영 작가는 여행 사진과 다양한 수집품으로 기억에 대한 공유를 공간 속 오브제로 표현하는 전시를 기획했다.

"개인적으로 작은 공간에서 전시를 했던 경험은 있지만 공모에 지원한 것은 처음이에요. 올해는 개인 프로젝트를 정리하는 전시를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웃는얼굴아트센터' 사이트에 들어갔다. 운명처럼 신진작가 공모 공고를 봤습니다. 전공자가 아니어서 걱정도 많았고, 전화를 걸어 '할 수 있나요?'라는 문의도 했어요. 그런 패기와 신선함을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따뜻한 색감을 가진 사람이고 싶어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서 1년을 지냈다. 23살까지 한국에 있던 자아는 그대로 한국에 두고, 그곳에서 한 살의 새로운 자아가 태어난 것 같은 경험을 했다. 시공간의 변화 안에서 다른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은 역락으로 여행이 좋다. 일상의 삶과 여행의 일탈을 번갈아 누리고 있다.

"대구에서의 삶에 충분히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낮과 밤, 사계절 모두 좋은 상당웃, 대학 시절을 보낸 계명대학교 대명동 캠퍼스를 가까이 두고 맘만 먹으면 언제라도 갈 수 있는 것이 좋아요."

재능을 가진 가능성 있는 대구 출신 예술인들의 유출이 아쉽다. 한편으로는 자기만의 색깔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더 기대가 되기도 한다.

"재미 삼아 몽친 크루가 있어요. 다모디 프로젝트에서 몽글몽글한 무언가를 추구하는 몽글러스로 나만 알고 싶은 대구의 장소를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기도 했고, 지금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 중입니다. 대구가 좋아 대구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성향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곧 대구 예술인의 정체성으로 부각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디테일이 강하고,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를 좋아한다. 감독의 의도를 추리하는 쾌감을 즐기는 그녀는 탐험을 즐기는 방랑자다. 언젠가는 대림미술관의 '구슬모아당구장' 같은 공간에서 전시를 하고 싶다. 많은 사람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전시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오늘을 위해 골라 입은 알록달록 원피스는 신소영 작가를 그대로 드러낸다. 작가를 표현하는 여러 색깔이 그녀의 바람대로 따뜻하게 깊어질 거대한다.

"당신과 나의 이번 여름은 어쩌면 조금 특별할지도 모릅니다. 여태 그래 왔던 우리의 여름은 잠시 사라졌으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여름을 지내야 합니다. 누군가의 여름으로부터 당신의 여름이 채워질 것이라며, 한껏 이 안의 여름을 즐기다 가시길."

오스트리아 빈(Wien)에서 만남 클림트와 베토벤

글. 서순정, 여행 작가

오스트리아 빈. 영어식 표기로 '비엔나'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불리는 이름 '빈'이 더 어울린다. 닷새 동안 머물 작정이었던 첫 여행에서 꼬박 열흘을 채우게 했던 빈의 사랑스러운 면모는 지면의 한계를 떠나 표현력의 미치지 못함으로 다 담아낼 수 없을 것이다. 그중에서 제채시온(Secession)에서 만난 클림트의 베토벤을 끄집어낸다.



예술가들의 영감과

탐닉의 도시

내가 알고 있으며 기억하고 있는 빈이 사랑스러운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오랜지색 사인이 산뜻한 안 내만만 보아도 심장이 두근거렸던 MQ(뮤지엄카르티에 빈), 달콤한 초콜릿과 케이크, 어디서 주문해도 실패 없는 향과 맛의 커피, 너무 거대하지도 않고 갑갑하지도 않은 도심의 크기, 슈테판 성당에 올라 만난 노을, 한밤의 놀이공원.. 그리고 도시 곳곳 촘촘하게 박혀 있는 예술가의 흔적들이 발길을 잡아끌어 빈을 쉽게 떠날 수 없었다.

극작가 브레히트는 빈을 두고 '커피의 굴레 속에 안 들어진 도시라 칭했다. 카페가 시대를 김숙이 파고 들어 세련되고 선명한 영향을 미친 도시다. 카페는 예나 지금이나 어느 나라에서나 작가와 예술가들이 영감을 얻는 탐닉의 장소다. 특히 빈의 커피하우스에서는 커피를 주문하면 물 한 잔을 함께 내어줬다. 커피 고유의 향과 맛을 즐기기 위해 입 안을 씻어내라는 의미와 함께, 가난한 예술가들이 커피를 추가로 주문하지 않고도 한 잔의 물로 인양하지 않게 자리를 점령할 수 있게 하려는 배려였다. 지금도 빈에는 이 전통을 지키고 있는 곳이 많다.

현대적 마천루와 고풍스러운 전통이 공존하는 도시, 음악과 예술, 건축과 문학을 아울러 수많은 예술가들이 오랫동안 머무르고 사랑했던 곳에서 나흘째 밤을 지내고 제체시온에 이르러 나의 빈. 그곳의 시간은 120년 전으로 돌아갔다. 19세기 말의 빈, 분리파의 성전과 다름없는 제체시온이다. 빈을 두 번째로 여행하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달려간 곳 또한 제체시온이었다.

시대에는 예술을, 예술에는 자유를

Der Zeit ihre Kunst, Der Kunst ihre Freiheit

빈을 압도하고 있는 것은 누가 뭐래도 구스타프 클림트다. 빈 공항에서부터 여행객을 환영하는 클림트의 그림 '키스'를 보라. 정작 벨베데레 궁에서 진품으로 마주한 '키스'는 생각보다 작은 규모, 그마저도 겹겹의 보안장치 덕분에 질감을 제대로 느낄 수도 없어 아쉬웠다. 그 아쉬움을 달래고도 남을 전용을 경험한 곳이 제체시온이다.

카를플라츠에서 MQ 방향을 바라보면 발견할 수 있는 건물인 제체시온은 하얀색 집 지붕에 황금색의 사과, 양파, 양배추 같은 것을 올려놓은 듯 특이한 외형을 하고 있다. 고풍스럽고 역사적인 건물들 사이에서 더욱 눈에 띈다. 제체시온은 건물의 이름인 동시에 클림트가 1897년 8명의 동료와 함께 빈 미술가 협회를 탈퇴하고 창설한 빈 분리파를 뜻하기도 한다. 분리파의 집결지였던 제체시온의 입구에는 그들의 슬로건이 걸려 있다. '시대에는 예술을, 예술에는 자유를'

제체시온의 지하 전시공간을 엄숙하게 점령하고 있는 클림트의 프레스코화 '베토벤 프리즈 Beethovenfries'는 원래 독립된 작품이 아니다. 베토벤의 천재성을 찬양하고 분리파의 영웅과도 같은 막스 클링어의 작품 '베토벤 상'에 존경을 표시하기 위해 기획된 제14회 분리파 전시회(1902년)의 일부였다. 빈 대학 대강당 천장에 차례로 그린 장식화 시리즈의 외설성 논란으로 인한 클림트 스캔들이 여전히 떠들썩한 가운데 열린 전시회였다. 신성한 분위기를 위해 교회처럼 꾸민 전시장에서 중앙의 '베토벤 상'에 이르기 위한 첫 번째 관람코스가 '베토벤 프리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년~1827년



Gustav Klimt, Beethovenfries 첫 번째 긴 벽 '약한 자들의 고뇌'

세 벽만을 부유하듯 흐르는 3부작 벽화

전시실 세 벽면에 클림트의 벽화가 옮겨져 있고, 편안한 소파에 앉아 맞은편 벽을 감상할 수 있다. 전시실 안내인은 대단히 친절했지만, 그 이상으로 엄격하다. 숨소리조차 찾아들게 만드는 분위기 속에서 베토벤 '교향곡 제9번'만이 홀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변화무쌍하게 흐르고 있었다. 클림트는 기악과 성악이 통합된 새로운 시도가 격렬한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바그너의 해석을 바탕으로 베토벤을 회화적으로 재탄생시키며 그만의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약한 자들의 고뇌', '적대하는 힘', '환희'에 이르는 3부작 벽화는 오른쪽을 향해 연속적으로 나아가는 부유하는 여성들의 형상이 이끄는 선율을 따라 흐른다.

전시관을 들어서면 바로 마주하게 되는 첫 번째 긴 벽은 행복을 동경하는 나약한 인류의 고통과 고뇌로 채워져 있다. 이어 시선을 오른쪽으로 돌려 좁은 가운데 벽을 만난다. 여백이 많은 두 개의 긴 벽에 비해 좁은 벽은 강렬한 색, 다소 충격적인 장면으로 가득하다. '행복한 동경'이 '적대적인 세력'을 만나는 순간이다.

바그너가 괴테의 <파우스트>를 인용해 해석했던 제2악장을 클림트는 고릴라의 모습을 한 괴물 튀폰(튀포에우스)으로 구체화했다. 정적이고 엄숙한 다른 벽의 인물들에 비해 과감한 시선과 자세의 여인들의 섹슈얼리티 묘사는 19세기 말 빈을 비롯한 유럽에 창궐했던 성병과 일상화된 매춘의 퇴폐성을 묘사하는 동시에 위선적인 시민 사회의 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도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적대적인 세력의 유혹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행복에 대한 염원은 멈추지 않는다. 좁은 벽의 맨 끝에는 여전히 꿈을 꾸듯 부유하는 형상이 나타나, 다시 그 다음 긴 벽으로 이끈다. 절망의 현실을 초월한 달콤한 동경, 교향곡의 제3악장이다. 마침내 리라가 연주하는 '시'에서 평정을 찾고, 아무런 그림이 없는 공백으로 이어진다. 교향곡의 휴지부를 그대로 옮겼다. 그리고 제4악장에 이르러 기악과 성악의 완전체 인류의 행복이 노래 합창된다. 클림트는 이것을 연인의 포옹과 키스로 구현했다. 베토벤이 가져온 실러의 '환희의 송가'가 개인적이고 에로스적인 연인의 사랑을 넘어 인류애를 포함한 정신적 사랑인 아가메로 융합되었다.

어째서 베토벤인가, 1900년의 베토벤 열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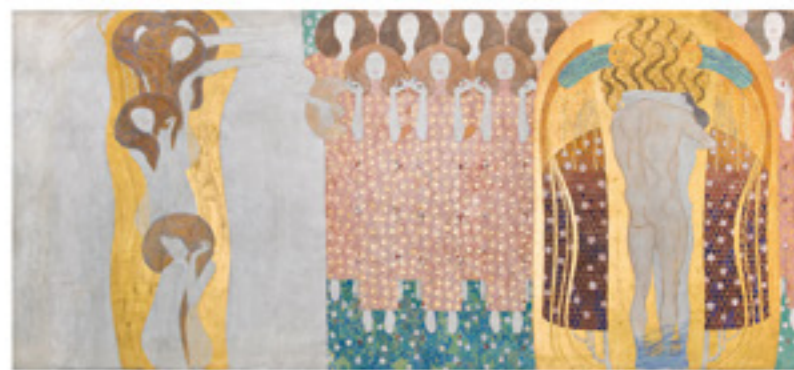
2020년은 탄생 250주년을 맞는 '베토벤의 해'다. 베토벤의 해를 맞아 1902년 빈 분리파가 숭배한 베토벤을 돌이켜본다. 그는 오늘날의 의미에서 진정한 '예술가'로 불린 최초의 인물이다. 모차르트마저도 잘츠부르크 추기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으나, 불과 몇 년 후 등장한 베토벤은 스스로 예술가이며 자신의 작곡이 예술품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했고, 분명하게 주장했다. 19세기 말 베토벤의 전기가 발견되고,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던 바그너의 존경 어린 찬미가 더해지자 베토벤에 대한 열기는 더욱 고조됐다. 이는 공간과 조각, 회화가 어우러진 뛰어난 연출력을 가진 분리파의 총체예술작품적 이상을 극적으로 보여준 전시회로 대중들에게 선보여졌던 것이다.

애당초 전시가 끝나면 철거될 예정이었으나 클림트의 친지에 의해 벽이 통째로 뜯어져 보관될 수 있었고, 유대인 컬렉터에게 팔렸다가 나치에게 몰수되었고, 전쟁이 끝난 후 회수되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갇혀있던 이 작품은 1985년 세계미술 전시를 계기로 다시 꺼내어졌다. 그리고 빈의 온갖 것에 매료된 한 여행자의 심장을 공황거리게 했다.

클림트는
'베토벤프리즈' 전시를
마지막으로
모든 공적임무를 포기하고
개인 작업에 몰두했다.
불만에 찬 보수주의자들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을까.



Gustav Klimt, Beethovenfries 좁은 벽 '적대하는 힘'



Gustav Klimt, Beethovenfries 두 번째 긴 벽 '환희'

결국 이 작품은 당시 사회를
향한 클림트의 결별선언이
되고 말았다.
이후 1905년 클림트는
동료들과 함께 분리파를
탈퇴한다.
그리고 이는 이른바
클림트의 '황금시대'를 여는
시발점이 되었다.

다양한 자아 하나의 아메리카

글. 카리오림 밴드 '더 플럼즈'

예술가는 세상에 존재하는 아름다움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표현하는 사람들이다. 그 중에는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펼치는 예술가들도 존재한다. 마치 내면에 또 다른 예술가가 숨어있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가 모르던 예술가들의 다양한 페르소나들을 만나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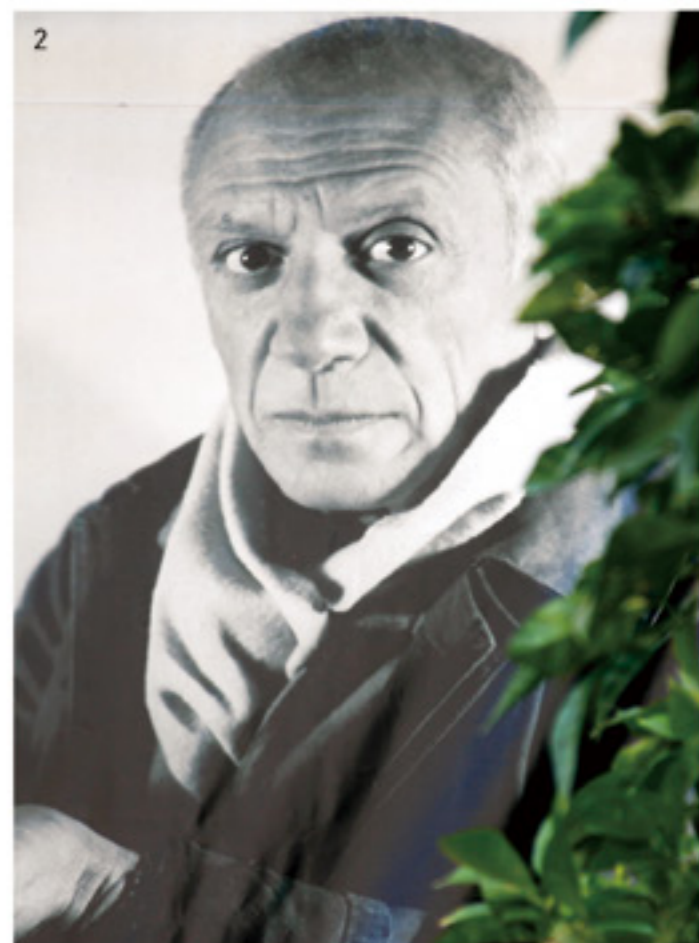
- 1 앤디 워홀(Andy Warhol) 1928년~1987년
2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 1881년~1973년

캔버스가 좁아진 화가들, 피카소와 앤디워홀

천재에게 세상은 즐거운 놀이터라는 말이 있다. 그들이 가진 특별한 감각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즐거움을 찾아낸다. 그리고 어떤 천재들에게는 놀이터가 좁게 느껴질 때도 있다. 특히 빠른 시간에 한 분야를 섭렵한다면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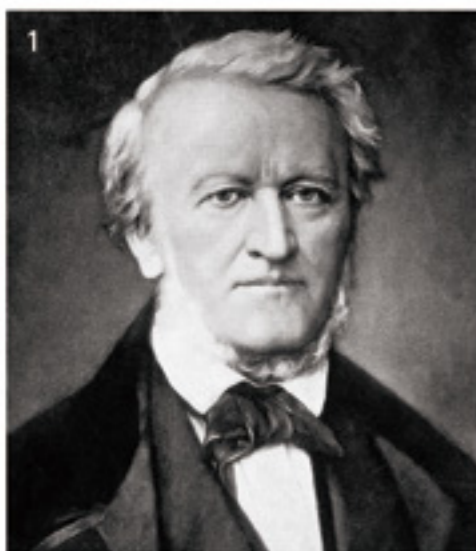
20세기 입체주의(큐비즘)의 거장이자 천재 화가의 대명사로 불리는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 많은 사람들이 피카소라고 하면 입체주의 화풍을 떠올리지만, 사실 그는 생전 계속해서 화풍의 변화를 추구한 인물이다. 10대 때 고전주의를 마스터 했고, 입체주의를 정립한 이후에도 신고전주의, 신인상주의, 표현주의 등을 끊임없이 오갔다. 캔버스 안에서 선은 알아졌다 굵어지고, 음영이 짙어졌다 사라지며 피카소가 느끼고 상상한 아름다움이 자유자재로 표현됐다.

1953년, 54세가 된 피카소는 캔버스를 떠나 시의 세계로 모험을 떠난다. 스스로 미술을 버렸다고 표현할 정도로 시 쓰기에 전념해, 24년 동안 약 300개 이상의 작품을 썼다. 그는 시의 세계에서 그동안의 관습과 법칙을 비웃듯 언어들을 가지고 놀며 창작활동을 이어갔다. 오늘날 '문학의 회화'라는 칭송과 함께, 20세기 실험시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화가로 활동하는 와중에도 조각, 도예, 무대 디자인, 커튼 디자인, 발레복 디자인 등 다른 분야를 통해 예술의 세계를 넓혀갔다. 캔버스가 좁았던 게 아니라, 온 세상이 그의 캔버스였던 셈이다.



팝아트로 유명한 앤디워홀도 종이 위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영화 제작자이자 감독으로 꾸준히 활동한 영화인이기도 하다. 무려 60여 편의 영화를 만들었다. 물론 기존의 대중적인 영화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영화들이 대부분이다. 새로운 영역이지만 낯설지 않다는 듯 자신만의 영화 세계를 만들어 나간 것이다.

또한 당시 무명이었던 밴드 '벨벳언더그라운드'를 발굴해 첫 번째 앨범을 프로듀싱했다. 음악적인 프로듀싱은 아니었고, 앨범 제작과 밴드의 활동 전반을 관리한 제작자이자 매니저의 역할이었다. 앨범은 상업적으로 실패했지만, 이후에 가치를 인정받으며 현재까지도 록 음악사에 길이 남을 명반으로 꼽히고 있다.



나 자신들과의 협업.

리하르트 바그너와 스티비 원더

예술은 예술가 한 사람의 온전한 담미 활동일 수 있지만, 복수의 사람들과 그들의 결과물들이 협업을 해야만 완성되는 예술 영역도 존재한다. 독일의 작곡가인 리하르트 바그너는 오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로 칭송받는 인물로 종합예술로서의 오페라를 정립했다. 그는 예술은 보편적이고 근원적이어야 한다고 믿었으며, 개개의 예술이 고립되어 발전하는 것은 전체 인간을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자신만의 오페라 세계를 정립하기 위해 바그너는 작곡뿐만 아니라 가사와 대본을 직접 쓴 극작가이기도 하다. 또한 자신의 무대를 직접 연출했으며 자신의 오페라에 최적화된 전용 극장을 직접 설계까지 했다. 덕분에 그의 오페라 세계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존재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바그너는 자신의 생각을 '종합예술이론'으로 발전시켰고, 오페라를 위한 음악 이론을 정립하는 등 이론가로서도 이름을 알렸다. 그의 이론은 오페라뿐만 아니라 미술, 철학, 문학,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주었다. 실제로 그는 정치나 철학에 관한 저서는 물론 서정시와 단편소설, 수필까지 발표한 문학가이기도 했다. 모든 것이 조화

롭게 어울리는 이상적인 예술을 위해 그 자신이 다양한 인물이 되어 협업을 펼쳐나갔던 것이다. R&B의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스티비 원더. 미성, 폭발적인 가창력과 뛰어난 작곡 및 프로듀싱 능력으로 유명하지만 악기에도 정통한 연주자이기도 하다. 피아노, 드럼, 기타, 베이스 등 많은 악기를 전문 연주자 이상의 실력으로 다룰 수 있어 앨범 녹음을 세션의 도움 없이 온전히 혼자서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하모니카는 이미 10대 초반의 나이에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했다고 평가받을 정도다. 연주 기술도 완벽할뿐더러 나아가 감정표현 또한 뛰어나 누구도 쉽게 그의 연주를 따라하지 못한다. 무대에서는 주로 피아노 연주와 노래를 하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이 밖에 드럼과 피아노 같은 경우에도 흑인 음악 역사를 통틀어 손에 꼽을 연주자로 칭송 받고 있다. 무대 위의 스티비 원더는 혼자였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연주자가 함께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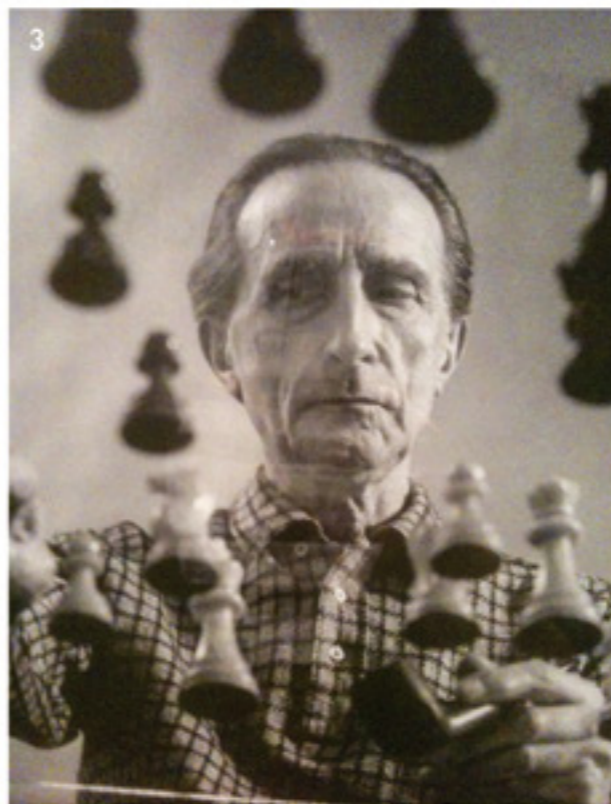
- 1 리하르트 바그너(Richard Wagner) 1813년~1883년
- 2 스티비 원더(Steve Wonder) 1950년~
- 3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 1887년~1968년
- 4 J.K. 롤링(Joan K. Rowling) 1965년~

예술을 위한 자기부정. 마르셀 뒤샹과 J.K. 롤링

이름은 한 객체에 대한 가장 완벽한 정의다. 그 어떠한 수식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본질 그 자체다. 따라서 종종 어떤 이들은 자신을 숨기기 위해, 또 다른 자아를 위해 가명을 쓰기도 한다. 프랑스의 화가이자 조각가인 '마르셀 뒤샹'은 단순히 무언가를 창조해내고 표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의 물체에 대한 개념과 해석을 전복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을 해왔다. 그 중 가장 유명한 작품이 남성용 변기를 그대로 활용한 <샘>이다. 당시 그는 이 작품을 출품하면서 자신의 이름 대신 'R.mut'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이후 뒤샹은 한 잡지에 무명작가인 'R.mut'를 옹호한다는 글을 투고하기도 했다. 어쨌든 가장 유명한 무명작가의 작품은 예술의 본질적인 사조를 전환시키는 데 성공하며 이후

수많은 예술가들과 작품에 영향을 미치는데 성공하게 된다.

2013년 '로버트 겔브레이스'라는 무명의 작가가 추리소설을 세상에 내놓았다. 그 소설은 <쿠쿠스 콜링>. 출간과 동시에 수많은 매체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주목을 받았지만, 작가의 행방은 묘연했다. '로버트 겔브레이스'는 사실 전 세계를 강타한 판타지 소설인 <해리포터>의 작가, 'J.K. 롤링'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초심으로 돌아가 글을 쓰고 싶었고, 순수하게 작품을 평가받고 싶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숨겼다고 밝혔다. 심지어 'J.K. 롤링'으로서 '로버트 겔브레이스'의 작품에 대해 다소 아쉽다고 평가를 내린 적도 있었다. 평가는 좋았지만 판매량은 적었던 <쿠쿠스 콜링>은 작가의 정체가 밝혀진 후 날개돋힌 듯이 팔렸지만, 'J.K. 롤링'은 만날 수 없는 '로버트 겔브레이스'를 그리워하고 있다.



두류공원,

여름날의

글 서순정, 여행 작가
사진 신상욱

낮과 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 집안에만 있기엔 아무래도 날씨가 너무 좋다. 밀폐된 공간, 밀집되고 밀접한 공간을 피하라는 지침을 지키기에 공원만한 곳이 있을까. 여름이면 각종 페스티벌과 음악회로 분주하던 두류공원이 낯설게도 조용한 여름을 나고 있다. 갈 수 있는 곳이 마땅찮은 요즘, 소란스럽지 않아 더 고마운 공원으로 간다.



성당못 두리길 산책

평일 오후 2시의 공원은 한산하나, 한낮의 햇살만큼은 빈틈이 없다. 성당못의 물결은 잔잔하나, 물 위에 스치는 상념은 요동칠 것이다. 물빛이 내어주는 대답이 귀를 기울이며 한 바퀴 더 돌아본다.

도심을 등지고 하늘과 가까이

두류공원은 달서구의 북동쪽, 대구의 중심부에 자리를 잡았다. 동글게 펼쳐졌다 해서 두리산으로 부르던 것이 두류봉, 두류산이 되었다. 1977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원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니, 40년도 훌쩍 넘는 세월, 내 나이와 비슷하다. 빌딩숲, 아파트촌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 마당 있는 집은 로망이 되었다. 마당도 없는 내 집에 들이지 못하는 숲을 찾아 온 곳이 두류공원이다. 떨어진 자리 그대로 뿌리를 내린 채 하늘을 향해 솟아있는

나무가 가득한 공원에 들어서서 온 감각을 열어 푸르름을 열렬히 관찰하다가 문득 아무것도 하지 않을 시간과 자유가 맘껏 주어지는 것 같은 기분에 휩싸인다. 꽃과 나무 대신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 될 것만 같다. 대구의 중심에서 평온함을 지키고 있는 곳. 바쁜 삶 중심에서 고요함을 갖게 하는 곳이다. 바쁘고 조급했던 마음이 슬며시 사라지려 한다. 공원은 찾아온 이의 영혼도 평온하게 하는 곳인가 보다.

잔잔한 물을 바라보니, 그 물에서 수만 가지 대답이 돌아왔다

오후 2시의 한낮, 마음과 머리를 비우고 본격적인 산책에 나선다. 그 시작은 햇살을 담백 받고 반짝이는 성당못이다. 한걸음 뒤에서 바라본 성당못의 물은 거울이 되었다. 두동실 떠있는 여름 구름과 그 구름을 안은 너른 하늘이 비친다. 물가에 바짝 다가서니 그 아래 내 모습도 비친다. 물속에 아른거리는 내 모습은 한순간에도 여러 가지로 바뀐다. 마음속의 생각들이 번갈아 비치는 것인가. 성당못을 두어 바퀴 휘이 돌고 나면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다.

두리길을 따라 성당못을 크게 돌았다. 눈에 담기는 모든 것이 다 푸르다. 공기마저 푸르러 폐까지 푸르러지는 기분이다. 예로부터 못에는 빠지지 않는 정자가 성당못에도 있다. 공연장의 기능을 할 수도 있는 부용정이다. 부용정으로 이어지는 삼선교가 어우러져 알지도 못하는 옛날 어느 풍류객의 마음에 저절로 기대게 된다. 시심(詩心)이 한껏 돋는 것을 분수가 소아 울리는 물대포가 흩어놓았다. 시심이야 언제든 돌아오겠지. 한낮의 햇살 덕에 이마며 콧잔등에 맺힌 땀을 식혀주는 시원한 물줄기가 고마울 밖에.

바람개비
아래
돛자리를
깔고

걸을 만큼 걸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에는 동호회 사람들이 여럿 나와 있었다. 구경하는 동안 사람은 점점 많아졌다. 점심을 든든하게 먹고 왔는데 걸다 보니 출출해 매점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콩국수도 한 그릇 먹는다. '콩국수 6000' 여름날의 산책 후 외면하기 어려운 끝자막한 현수막이다. 걸쭉함은 덜해도 시원하고 고소하다. 그리고 드디어 야외음악당으로 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바람개비를 세웠다. 바람개비 하나에 돛자리 하나, 원칙을 지켜 자리를 잡아야 한다. 여기 저기 바람개비를 기준으로 돛자리를 깔린다. 사진도 찍고, 책도 읽고, 사람 구경. 강아지 구경도 재밌다. 파랗던 하늘이 핑크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더니 이내 무섭도록 짙은 파랑이 되었다. 83타워에도 불이 켜지고,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하는 전디발은 더 근사하다. 모든 빛을 완벽하게 흡수하는 캄캄한 밤이 되었다. 기이하게 아름다운 검은색의 밤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게 한 것은 몹쓸 바이러스일까. 오토바이 소리가 나더니 치킨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한다. 치킨보단 맥주에 더 동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를 위해 세운 야외음악당의 바람개비

사는 게 쉽다면 공원의 휴식이 이토록 달콤하지 않을지 모른다.
치열했던 하루,
오늘 이렇게 잘 쉬고,
내일 더 잘 살아가야지.
그리고 다음번엔
차를 두고 와서
맥주를 마셔야지,
생각한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는 야외음악당





「예술인 희망in 달서」 시네마 프로젝트

달서문화재단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의 영화·영상 산업 회복을 위해 창작자를 지원하는 「예술인 희망in 달서」 시네마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달서문화재단 주최,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주관으로 장기간 활동이 중지돼 어려움에 처한 대구·경북 영화·영상 인들을 응원하고,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코로나19, 달서구, 이곡장미공원, 월광수변공원, 선사시대로, 공동체, 연대, 지역사회 등의 내용이 담긴 공모 주제로 영화·영상 제작비 전액을 지원하고 대구영상미디어센터 보유 장비 및 다양한 SNS를 통한 홍보 등을 지원했다. 최종 선정작은 10월까지 제작과 후반작업을 마무리해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에서 내부사회 및 특별 색션 상영회를 갖게 된다.

영화 부문 프로젝트

13개 팀 지원, 4개 팀 선정
심사위원 김창원, 백승빈, 손영득, 송국선

선정작들 가운데 <나랑 아니면>과 <사라지는 것들>은 이번 공모 주제를 무엇보다 치열하게 고민해 내놓은 흔적들이 인상적으로 새겨져 있는 작품들이었다. 팬데믹의 시기에 누구보다 힘들고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을 노인 세대의 마음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나랑 아니면>의 태도에 감동하면서도, 두려움 정도로 바쁘게 지나가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재에 무엇을 붙잡고 기억해야 하는지를 질문하는 <사라지는 것들>의 영화적 시선은 많은 창작자들에게 색다른 감흥과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게 한다. 이

두 작품들이 영화적 고민을 치열하고 진지하게 담고 있는 이야기들이라면, <행궁>과 <국수 한 그릇>은 상대적으로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인물과 상황을 배경으로, 소박하고 싱겁더라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위로와 안정을 주는 이야기들이다.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았지만, 시나리오의 완성도와 공익성, 지역 연계성, 그리고 무엇보다 구체적이고 선명한 제작계획을 보여준 작품들을 어렵게 선정했다.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한 작품들도 다른 공모사업을 통해 꼭 영화화되길 기원한다.



❶ <나랑 아니면> 박재현

대구에서 음식점을 비롯한 몇몇 곳에서 청소일을 하는 60대의 김수와 박원 부부.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고 한 곳씩 청소일을 중단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남은 음식점마저 쉬게 된다. 오랜만에 집에서만 함께 있게 된 두 사람.

“아직까지 한 번도 부모님께 제가 만든 영화를 보여드린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시나리오를 썼어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 김정희마의 노래 ‘나랑 아니면’에서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노래에 자주 등장하는 가사 ‘나랑 놀자’를 생각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쓰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❷ <행궁> 남가원

일상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사회적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20대 중반의 영동하면서도 소심한 매력의 여서는 집의 세탁기가 고장 나면서 동네 코인세탁소를 즐겨 찾게 된다. 일상과 맞닿아 있으면서도 이질적인 공간으로 묘사된 24시간 코인세탁소의 새벽 그곳에서 다른 ‘여자’와 만난 이후 벌어지는 변화.

“꽤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시나리오인데, 이번 프로젝트에 지원하며 위로가 되는 따뜻한 이야기로 방향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달서구에 있는 코인세탁소를 섭외했고, 달서구의 매력적인 길과 동네들을 담은 예정입니다. 작품을 통해 우리가 함께 겪었던 아픔이 조금이나마 행구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❸ <사라지는 것들> 권민령

어린 시절 놀던 곳을 찾아온 주인공. 하지만 이미 그 공간은 재개발로 사라졌다. 허망하게 주인공의 앞에 옛친구가 찾아오는데 이 친구가 심상찮다. 자꾸만 사라지며 주인공에게 관심이 별로 없는 듯 계속 쫓아다닌다. 옛친구가 찾아온 이유가 밝혀지고.

“태어나서부터 불과 몇 년 전까지 살던 동네에 갔더니 예전과 달리 많이 변해 있었어요. 팬지 모를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소리도 잊히고 사라지는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빠르게 변해가는 요즘 세상에 장소와 함께 소리도 기억하고 싶다는 생각에 이 영화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❹ <국수 한 그릇> 윤진

8세 어린이 정연은 여름방학을 맞아 아빠와 등산을 갔다 내려오는 길에 허기가 지 산 초입의 국숫집에 들렀다. 국수를 먹고 계산을 하려는 아빠, 그런데 가게 사장님은 현금만을 고수하고 아빠는 현금이 없다. 결국 딸을 국숫집에 맡기고 현금을 뺏으러 가고, 딸은 국숫집 국수를 모두 육수통에 넣어버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터진 팬데믹 사태. 왕복 8차선 도로가 한산할 정도로 조용한 도시가 되어 저 역시도 집에서 영화, 애니메이션을 주구장창 보다가 ‘정글북’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잠을 자 거라, 마음을 놓고, 꿈을 꾸어라.’로 시작하는 문구에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장수를 의미하고 좋은 날 먹는 음식인 ‘국수’라는 소재를 골라 위로가 되는 작품을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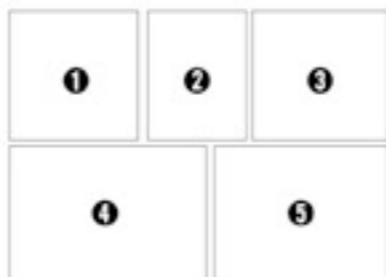
영상 부문 프로젝트

9개 팀 지원, 5개 팀 선정
심사위원 권현준, 송국선, 유지영, 정재한

사업 취지에 맞게 '코로나19 극복', '희망', '이웃', '공동체' 등의 키워드를 가진 작품이 많았으며, 이들 키워드를 가지고 홍보영상, 드라마, 뮤직비디오, 다큐멘터리, 몽타주영상 등 다양한 형식의 영상으로 표현하고자 한 시도들이 인상적이었다.

<슬기로운 코로나 생활>은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을 위해 달서구만의 특색 있는 먹거리를 취재하여 소개한다는 내용으로 작품의 공공성이 돋보였다.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모여 대구 각 명소를 배경으로 각자의 예술 활동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Not alone>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속, 떨어져 활동하던 예술가들이 모여 협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동인아파

트 재개발 문제를 통해 그곳의 이웃과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동인아파트, 272의 몽타주>는 이미 많은 리서치와 푸티지를 보유하고 있어 이 작업이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지 기대되는 작품이었고, <대구 청년 탐구생활>은 드라마 형식으로 코로나 이후 현재 대구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변화된 모습을 5개의 에피소드로 풀어내는 방식이 흥미로웠다. <닥터 두의 코로나19 극복기>는 한 신경외과 의사를 쫓는 다큐멘터리로 국가적 재난과 위기 속에 한 개인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극복하려 하는 모습을 담고 있어 관객들의 많은 공감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❶ <슬기로운 코로나 생활> 최민영

대구를 주제로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창작팀 스튜디오 산중호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달서구 월광수변공원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수밭골 웰빙음식거리의 건강한 음식을 소개

"단순히 음식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료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매력을 이야기로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❷ <Not alone> 김제운

감독 김제운, 작가 김혜인, 작곡가 손정호, 보컬리스트 김영근, 이채원, 드러머 김민건, 피아니스트 김연귀, 기타리스트 오준석, 영상제작자 유서한, 최대성 등 대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재즈 연주자 및 영상 제작자들이 모여 함께 진행하는 뮤직비디오

"비슷한 경험을 하고 각자의 방법으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공유하며 공감과 위로를 느낄 수 있길 기대합니다."

❸ <동인아파트, 272의 몽타주> 김미련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동인아파트의 시간과 공간을 비선형적 내러티브에 기반한 연상적인 교차편집으로 철거를 앞둔 동인아파트 50년의 시공간과 삶을 기록

"개인의 삶이 겹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속, 변화될 수 있는 공동체가 가능한 도시재생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제 작품은 그러한 질문의 한 단면일 것 같습니다."

❹ <대구 청년 탐구생활> 이우진

평화롭던 어느 날 우리의 일상을 한순간에 바꾸어버린 코로나19. 평범한 생활을 누리던 청년들은 지금까지 누리고 지내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바뀐 세상 속 여러분은 안녕하신가요?

"힘을 모으고 서로 응원하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함께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❺ <닥터 두의 코로나19 극복기> 김성환

반월당에서 '두신경외과'를 운영하는 한병인 원장이 코로나19로 인한 병원 내적인 어려움을 극복함과 동시에 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을 기획하고 있는 과정을 관찰한 단편 다큐멘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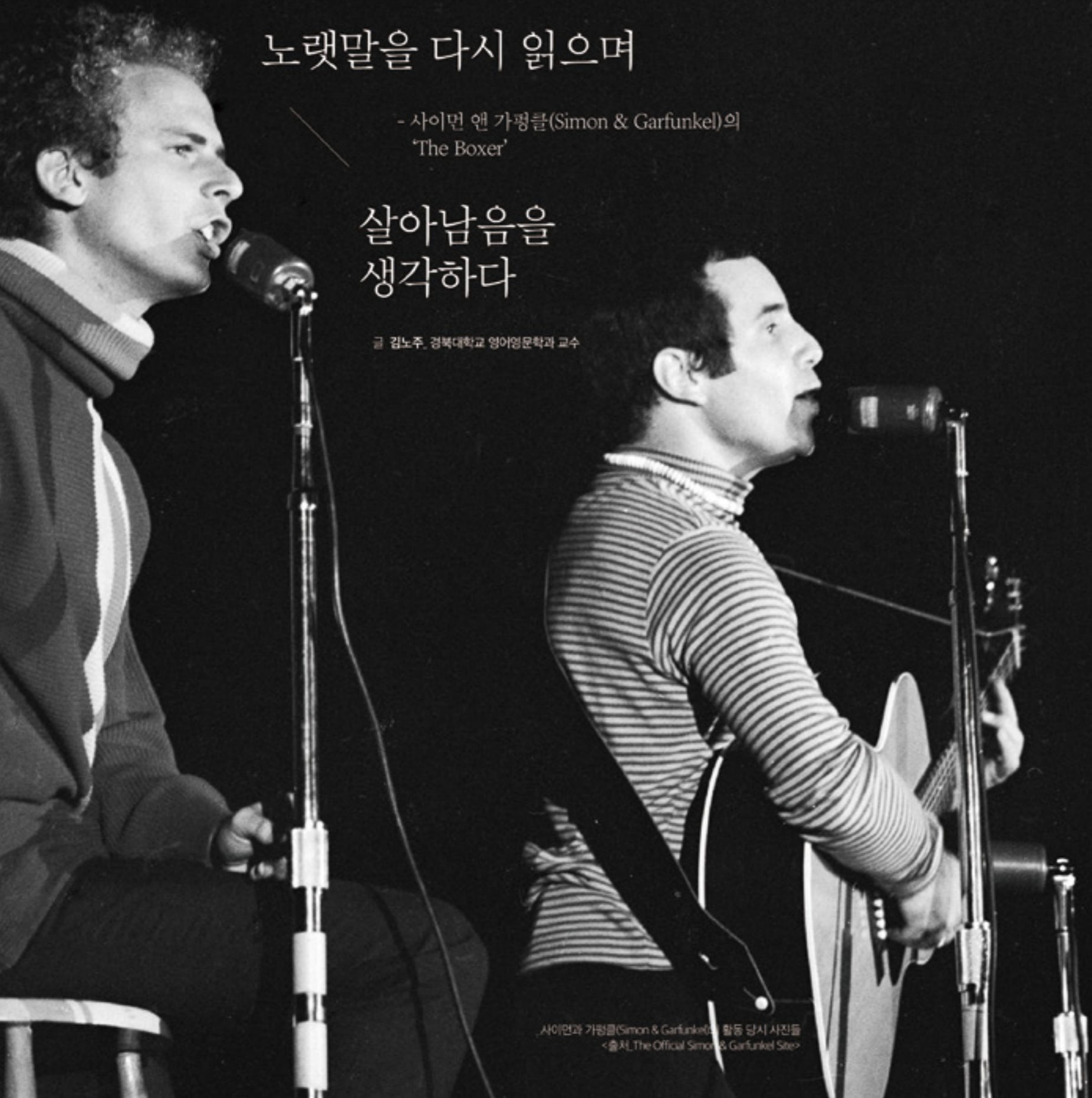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직면 월급과 월세 걱정에 마음이 편치 않은 한병인 원장이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기 위해 시도를 하는 과정이 흥미로웠습니다."

노랫말을 다시 읽으며

- 사이먼 앤 가펑클(Simon & Garfunkel)의
'The Boxer'

살아남음을 생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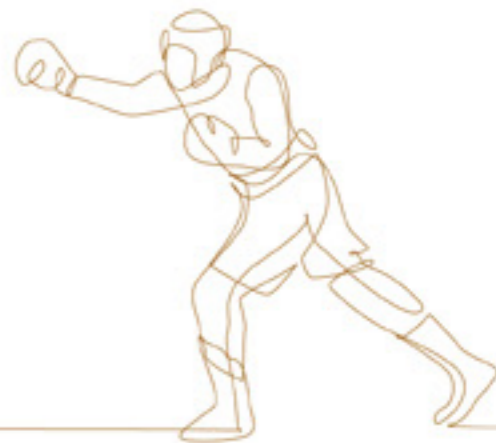
글 김노주, 경북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사이먼과 가펑클(Simon & Garfunkel)의 활동 당시 사진들
<출처, The Official Simon & Garfunkel Site>

'권투선수(The Boxer)'는 사이먼(Paul Simon)과 가펑클(Art Garfunkel)이 1969년에 발표한 클래식 팝송이다. 사이먼이 쓴 가사가 아름답고, 두 사람의 하모니가 심금을 울린다. 특히 노래 중간에 또 끝부분에서 울리는 펀칭 백(punching bag) 치는 소리는 심장을 뛰게 한다.

1962년, 뉴욕에서 열린 권투시합에서 숨진 쿠바 출신의 권투선수 벤 페랏(Benn Perat)을 추모하기 위해 이 노래를 만들었다. 그래서 노래의 공간적 배경은 뉴욕이다. 그러나 시간적 배경은 1960년대가 아니라 20세기 초반 권투가 아직 스포츠로 인정받지 못하고 불법도박으로 취급되던 때이다. 시간적 배경을 당긴 것은 주인공의 처지를 더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함이다.



/ 노랫말을 다시 읽으며 /

가사는 총 다섯 연(聯)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연은 주인공 자신이 가난 때문에 삶을 불법 돈벌이인 권투에 낭비했음을,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권투를 했음을 고백한다.

내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지만요, 전 그저 가난한 소년이에요

I am just a poor boy though my story's seldom told

한 줌의 돈 때문에, 내 삶을 낭비했어요

I have squandered my resistance for a pocketful of mumbles, such are promises

모두 거짓이고 허풍이었지만,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나머지는 무시해요

All lies and jests, still a man hears what he wants to hear and disregards the rest



둘째 행에서 환경에 대한 '저항(resistance)'을 '삶'으로, '약속과 같은 일어들'을 수 없는 한 줌의 말(a pocketful of mumbles, such are promises)'을 '한 줌의 돈'으로 번역했다. 이때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약속이다. 돈을 많이 줄 테니 불법이지만 권투를 하라는 거짓 약속 때문에 빠르게 살려는 의지를 꺾고 권투를 했음을 고백하고 있다. 셋째 행에서는 "본래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잖아요"라면서 슬쩍 자신을 변명하고 있다.

둘째 연어선 어린 시절 가솔한 첫날밤에 낯선 이들과 어울려 밤늦은 시각, 감시의 눈을 피해 선배 노숙자들을 따라 열차 역 외진 곳에 있는 잠자리를 찾아가는 장면을 묘사한다. 그리고 후렴구인 '라이라 라, 라이라 라라'를 외칠 때 네 번의 날카로운 펀칭 백을 치는 소리가 울린다.

내가 집을 떠났을 땐 어린 아이였어요

When I left my home and my family I was no more than a boy

낯선 사람들을 따라, 열차 역까지 조용해졌을 때, 겁먹은 채, 몸을 웅크린 채로, 노숙자들의 잠자리를 찾아 달렸어요

In the company of strangers, in the quiet of the railway station, running scared, laying low, seeking out the poorer quarters

남마를 걸친 사람들이 가는, 오직 그들만이 알고 있을 것 같은 그곳을 찾아서

Where the ragged people go, looking for the places only they would know



둘째 행의 '열차 역의 적막(the quiet of the railway station)'은 열차가 끊긴 밤늦은 시각을, '몸을 웅크린 채(laying low)'는 역무원의 눈에 띄지 않게 자세를 낮춘 것을 나타낸다. 자정이 지나 열차도 끊긴 시각에 역무원의 눈을 피해 노숙할 곳을 찾아 겁먹고 웅크린 채 뛰어가는 모습이다. 셋째 행에서 사실적 표현인 '그들이 아는(they knew)'이 아니라 비사실적 표현인 '그들만이 알고 있을 것 같은(they would know)'은 주인공으로서 이날 밤이 첫날밤, 즉 노숙 장소에 처음 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셋째 연어선 뉴욕에서 막노동이라도 하려고 했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했음을, 일자리 대신 뉴욕의 매춘부들이 그를 불렀고 너무 외로울 땐 그곳에서 위안을 받기도 했음을 고백한다. 그리고 또 다시 후렴구인 '라이라 라, 라이라 라라'를 외치고, 네 번의 날카로운 펀칭 백을 치는 소리가 울린다. 아래 마지막 행에서 '내가 감히 선언한다(I do declare)'라고 하고 겨우 사창가에 간 적이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은 유머와 위트, 그리고 주인공에 대한 연민의 정을 불러오게 하는 장치이다.

노동자 품삯이나 받는 일자리를 찾아 (뉴욕에) 왔어요

Asking only workman's wages, I come looking for a job

일자리 제안은 없었고, 7번가에서, 몸을 파는 아가씨들의 부름만 있었어요

But I get no offers, just a come-on from the whores on Seventh Avenue

감히 고백하건대, 너무 외로울 땐 그곳에서 위안을 받기도 했어요

I do declare, there were times when I was so lonesome I took some comfort there



그리고 넷째 연에선 혹독한 겨울이 없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밝힌다. 노래 제목이 '권투선수'이지만 이상하게도 권투에 대해선 넷째 연까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제 겨울옷을 꺼내고 있어요

Then I'm laying out my winter clothes

집에 가고 싶어요, 집으로 갈래요

And wishing I was gone, going home

뉴욕시의 겨울이, 나를 절대 괴롭히지 않는 곳, 그곳으로 갈래요

Where the New York City winters aren't bleeding me, bleeding me, going home

둘째 셋째 행은 가정법 표현이다. 실제 떠난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바람이다. 셋째 행에서 나를 괴롭히지 않는(bleeding me)이란 표현을 두 번 반복한 것은 뉴욕 생활이 힘들고 고달팠음을 나타낸다.

마지막 연에선 구경꾼이 둘러선 공간에서 싸우는 모습을 묘사한다. '타고난 싸움꾼'이 아닌 돈벌이 권투선수로써 상대의 주먹을 수없이 허락하며, 무능한 자신에게 분노와 수치심을 느끼고, "떠날 거야, 떠나고 말거야"를 외치면서도,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그리고 '리이라 라, 리이라 라'로 시작되는 후렴구가 울리고 펀칭 백을 치는 소리가 서른두 번이나 울리며 끝난다.

사람들이 둘러선 가운데 권투선수가 서 있네요, 돈벌이 수단으로 권투선수가 된 친구지요

In the clearing stands a boxer, and a fighter by his trade

그를 쓰러뜨렸던 주먹들이 낸 상처들을 지닌 채로

And he carries the reminders of ev'ry glove that laid him down

분노와 수치심 때문에 "떠날 거야, 떠나고 말거야"를 외칠 때까지 생체기를 냈던

Or cut him till he cried out in his anger and his shame, "I am leawing, I am leawing."

그러나 그는 여전히 떠나지 않고 있다

But the fighter still remains

첫째 행의 'clearing'은 본래 나무를 베어낸 숲속의 빈 공간 혹은 '주택가의 빈 공터'를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사람들이 빙 둘러선 가운데의 빈자리'를 말한다. 정식 링에서 벌어지는 시합이 아니라 야외에서 돈을 건 사람들이 둘러선 가운데에서 벌이는 시합이기 때문이다. '돈벌이 선수(a fighter by his trade)'라는 말은 타고난 실력이 있는 선수가 아니라 몇 겹으로 돈을 버는 선수임을 나타낸다. 몇 라운드를 버티느냐에 따라 받는 돈의 액수가 달라지므로 가능한 오래 버티야 한다. 돈 때문에 얻어맞으며 버티고 있는 자신에 대해 분노와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마흔 번의 펀칭 백 치는 소리 아, 인생이여! /

둘째 셋째 연 다음에 각각 네 번, 그리고 마지막 연 다음에 서른두 번, 총 40회의 펀칭 백 치는 소리가 난다. 펀칭 백은 우리나라에는 샌드백으로 잘못 알려진 연습용 백이다. 그것의 본래 기능은 연습용이다. 그러나 실력이 없어 맞기만 하는 주인공은 상대 선수의 펀칭 백인 것이다. 아하, 펀칭 백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인생이여! 이 노래는 우리의 삶에 세 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 가능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즉 적성에 맞는 일을 직업으로 택하라는 교훈을 준다. 자발적으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분야를 택하라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너무 뻔한 얘기이다. 누가 자신이 진정 좋아하는 분야의 일을 하고 싶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기 자신의 실력과 노력, 그리고 운이 닿는 대로 가장 적성에 맞는 직업을 고르라는 말로 이해해 주기 바란다. 적성이 맞지 않으면 노력만으로 좋은 결과를 얻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위의 노래가 한 권투선수의 삶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의 생을 말하고 있다. 쉬운 삶이 어디 있는가? 위 노래 제목이 '권투선수'이지만 마지막 연을 제외하고는 전혀 권투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왜일까? 김광석의 노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을 들으며 푸념한다. 노래로라도 울조릴 수 있는 사랑은 덜 아픈 사랑이라고. 진짜 아픈 사랑은 아파서 기억할 수도 없다고. 권투선수의 삶이 너무 고달파 기억하기 싫고 입에 담을 수가 없어 언급하지 못한 것이다.

잘나고 못남, 강하고 약하고는 다 상대적이므로 삶은 명수가 우글거리는 정글을 헤치고 가는 모험인 것이다. 그래서 생이 힘들 때마다 생각하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주변에 많다는 것을.

/ 살아남았기에 이긴 것이다 /

끝으로, 노래의 주인공은 실패한 인생을 산 '루저(loser)'인가? 아니다. 전신에 살아온 흔적(remains)을 지닌 채, '스치는 글러브에 베인 상처(cut)'를 훈장처럼 지닌 채, 그래도 살아남았지 않았는가?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는가? 살아남았기에 이긴 것이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To win is to survive인 것이다.

필자는 이 노래를 대학 시절 내내, 그리고 그 이후 한동안 새벽 알

람으로 사용했다. 아무리 피곤해도 '리이라 라, 리이라 라'를 외치는 노래와 함께 배경에서 들리는 날카로운 펀칭 백 치는 소리를 들으면 저절로 잠이 깨곤 했다. 미국 유학 생활이 힘들 때는 선물집 주크박스에 이 노래를 틀어 놓고 버드와이저 한 잔으로 시름을 달랬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더 힘들다. 그러나 강한 자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임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아울러 취업 준비를 위해 밤낮을 일은 취업준비생들에게 당부한다. 장래를 위해 몰입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만 당신들을 위한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을 보면 안타깝고 미안하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을 지라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으므로 용영정진하여 사회의 기둥이 되길 빈다. 살아남아 나와 가족과 나라를 구하자!



멈추지 않는 계절을 따라

올해도 장미꽃이 피었습니다

<2020 장미꽃 필(Feel) 무렵 축제>

글. 편집부 서순정
사진. 편집부 김도형



매년 피는 꽃이다. 꽃집에 가면 가장 흔하게 살 수 있는 꽃이다. 장미꽃이란 이름을 달고 있는 축제도 셀 수 없이 많다. 그래서 때가 되면 으레 피는 꽃이라 생각했다. 올해는 조금 특별하다. 온 세상이 달라진 가운데 어김없이 찾아와주는 계절이 반갑고, 그 계절 따라 피고 지는 꽃도 새삼 고맙다.

달서구 이곡장미공원에도 장미꽃이 활짝 피었다. 한창인 장미꽃을 배경으로 올해도 <장미꽃 필 무렵> 축제가 열렸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중단되고 연기되는 축제들 가운데,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비대면 형식으로 열리는 축제였다.

이렇게 좋은 날 하루 먼저 찾아온 야외무대

공원에 장미가 흐드러지기 시작하여 달서문화재단의 고민은 깊어졌다. 대구 지역 여러 지자체가 각종 축제를 중단하고 있어 더 조심스러웠다. 예정된 공연의 진행이 시민의 건강보다 우선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해를 거듭하며 레퍼토리 공연으로 입지를 다져 왔기에 축제기간 중 야외무대에서 진행되는 메인 공연에는 많은 인파가 몰렸다. 이를 감안해 축제기간을 앞둔 평일 낮에 공연이

진행되었고, 녹화된 영상을 축제기간 중 달서문화재단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했다.

공원을 직접 찾은 관람객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2m 거리 두기를 지키며 공연을 즐겼다. 축제의 계절이 무색해진 올해, 얼마 만에 즐기는 공연인가. 연주자도 관람객도 가슴이 벅차다. 다채로운 음악으로 달아오른 공원의 공기는 장미꽃의 색도 향도 더 짙어지게 한다.



연주자와 관객이 만나 비로소 완전해진 공연

비교적 안전한 공원에서 펼쳐지는 야외공연이기 때문일까. 평일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관객이 모였다. 공연에 대한 오랜 욕망을 해소시켜줄 레퍼토리도 다채로웠다. 버스킹 밴드 'Mixtape Band', 대구시지정예술단체 전문 음악 공연팀 '인칸토솔리스트앙상블', 감성 발라드 '봉덕브라더스', 대구 경북 최초 기악앙상블 '노이슈타트', 청년 국악인 '여락', 금관악기와 타악기의 합주 '브라더스 BRAtHeSS', 어쿠스틱 여성 듀오 'Elly A.', 색소포니스트 '에릭 캅' 등 8개 팀의 무대가 이틀에 걸쳐 세워졌다.

Mixtape Band

대구에서 활동하는 버스킹 밴드입니다. 버스킹도 공연도 거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유튜브 영상 활동을 하고 있어요. 평일 2시여서 큰 기대를 안했는데, 기대보다 많은 관객과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오랜만에 참 좋습니다. 기본적인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야, 거의 제일 마지막에 공연 문화가 다시 설 자리를 찾을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이 무대가 더 귀하게 여겨집니다.



노이슈타트

독일어로 새로운 도시란 뜻을 가진 기악앙상블 팀입니다. 원래는 6인조로 활동하는데, 오늘은 네 명만 오게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공연 문화가 마비가 된 상황. 모든 것이 멈춘 듯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연주를 할 수 있는 무대가 너무 반가웠어요. 야외공연 음향시스템의 한계보다 아쉬운 것은 관객과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공연 영상 콘텐츠가 활성화되어 안방에서도 원하는 공연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연주자도 쉽게 무대를 선보일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장점이지만, 정작 공연장이 다시 문을 열었을 때 안방 공연에 익숙해진 대중이 무대를 찾지 않게 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제도 무관중 연주 영상 촬영을 했는데, 관객의 박수가 없는 무대는 여전히 어색해요. 순간의 공허함이 너무 큼니다. 관객도 공연의 중요한 부분이니깐요. 무대에서 관객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락

여락은 청년 국악밴드입니다. 다른 장르도 마찬가지로겠지만, 국악은 특히 관객의 추임새가 중요한 연주의 일부가 되는데, 관객이 없는 상태에서는 연주자가 그 모든 것을 다 소화해야 해요. 체력적 소모뿐만 아니라 흥이 나질 않아요. 완전한 공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어요. 공연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관객들과 눈을 마주치며 함께 흥을 표출하고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장미꽃 틈에서 활짝 핀 웃음에도
장미향이 묻어났다**

공원을 찾는 발걸음이 장미꽃만큼이나 화사하다. 포토존 운영과 인스타그램 이벤트가 함께 진행됐고, 야간에도 공원을 찾는 시민들을 위해 대형 LED를 설치했다. 매년 진행되던 장미차 시음과 화관 만들기 등 부대행사는 운영되지 않았지만, 축제를 즐기기에 부족함은 없다.

때를 잊지 않고 찾아온 계절과 꽃, 이 축제를 찾아 온 발걸음,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더욱 세심하게 기획된 콘텐츠에 이르기까지, <2020 장미꽃 필 무렵 축제>는 잊지 못할 감사함으로 기억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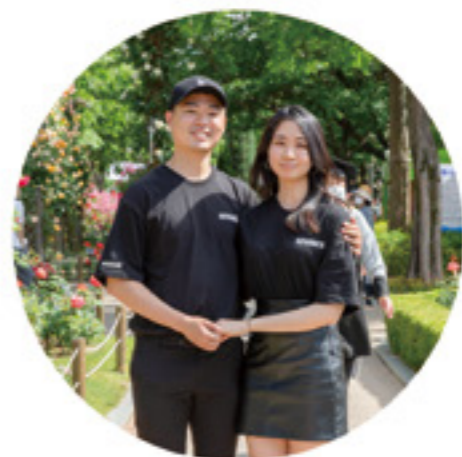
최진희, 김은지 모녀

작년에도 꽃을 보러 왔었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조금 어색하긴 해도, 장미꽃은 작년과 다름없이 예쁘게 폈어요. 이렇게 많은 장미에 취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칠 순 없죠. 내년에도 장미꽃이 피면 다시 찾아올 거예요.



권지훈, 권다현 부녀

장미공원 바로 뒤에 보이는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음악소리가 들려서 네 살배기 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딸이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거든요. 집이 가까우니 작년에도 왔었는데, 작년에 비하면 올해는 아직 많이 한산한 편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직 여전한 가운데 현장에서 무대 공연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 같아요.



지상현, 강수빈 연인

계명대학교 캠퍼스 커풀로 만나 현재는 장거리 연애 중입니다. 장미축제를 알고는 있었는데, 와본 건 처음이에요. 공연이 함께 어우러지니 스쳐가는 공간이 아닌 머물 수 있는 문화의 장소가 된 것 같아서 더 좋습니다. 인스타그램 이벤트도 있어서 참여의 재미도 있고, 평소에 잘 들을 수 없는 음악을 분위기 좋은 곳에서 들으니 더 좋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상과 소리를 만지는 사람들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축제를 즐길 관객들을 위해 현장감 있는 영상을 만들어내야 하기에 무대 아래의 움직임은 더욱 치밀하고 분주했다. 예정된 비소식으로 공연일이 번복되는 동안에도 더 애가 탔을 것이다. 현장의 분위기를 최대한 골고루 담기 위해 공연이 시작되기 한참 전부터 무대 곳곳을 확인하고,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 보이지 않는 곳의 치열함 덕분에 축제의 꽃이 된 8개 팀의 무대는 완성도 있는 영상으로 공개될 수 있었다.

대구시 신청사 유치를 축하하며, 달서구민과 함께여서 더욱 특별했던 2020 신년음악회

글·사진 허정무, 웃는얼굴아트센터 공연기획팀



지난 1월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는 2020 경자년(庚子年)을 맞이하는 성대한 신년음악회가 열렸다. 희망적인 새해를 기원하는 구민 화합의 장인 신년음악회는 매년 매진될 만큼 많은 구민들이 좋아하는 웃는얼굴아트센터의 시즌 레퍼토리이다.

새로운 도약과 희망.

신청사 유치를 기념하며

올해의 신년음악회는 여러 의미로 특별하게 진행되었다. 웃는얼굴아트센터의 새로운 도약과 새해의 희망을 담음과 동시에 달서구의 숙원사업이었던 대구시 신청사 유치를 기념하는 의미를 더해 더욱 성대한 신년음악회가 되었다. 공모를 통해 선정한 100여 명의 달서구민합창단이 함께 무대에 서는 등 진정한 구민 화합의 장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또한 한국-러시아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94년 전통을 자랑하는 극동 러시아의 중심 '하바롭스크 시의' 하바롭스크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초청하여 더욱 의미 있는 신년음악회였다.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이 중단된 현재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 관객과 함께 진행한 상반기의 마지막 공연이기도 하다.

마에스트로의 재밌는 해설을 더한

다채로운 프로그램

작년 <블라디보스토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특별 초청 공연> 때 지휘만큼이나 노련한 입담으로 공연의 재미를 더하는 해설을 선보이며 호평 받았던 마에스트로 노태철(러시아 아쿠티아 국립음악원 부총장)이 올해도 해설을 맡았고, 하바롭스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인 루슬란 안티핀스키와 공동으로 지휘하며 신년음악회를 이끌었다. 노태철 지휘자는 동양인 최초로 비엔나 왈츠 오케스트라, 프라하 모차르트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역임하였고, 러시아 아쿠티아자치공화국 국립오페라발레극단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활동하며 2018년 러시아 사하공화국 예술부분 최고 훈장을 수상한 정상급 지휘자이다.

이번 공연엔 아쿠티아 국립음악원 주역가수 '예카테리나 자하로바', '바리바라 코마로프스키야'와 수석무용수 '에레스코 데미안' 등이 하바롭스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여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1부는 폴카와 왈츠를 중심으로 작곡된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오페라타 <박쥐>의 주요 선율들을 모아놓은 '박쥐 서곡'으로 시작하여 리흐마니노프의 '이름다운 여인이여 노래하지 마오'와 러시아 민요 '카추샤'를 비롯하여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 오펜하흐의 <천국과 지옥> 등 발레곡과 무곡들을 선보였다.

2부에서는 아쿠티아 국립음악원 주역가수가 들려주는 한국가곡 '그리운 금강산'과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중 '밤의 여왕 아리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곡들로 프로그램

을 구성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하바롭스크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롯데콘서트홀(서울), 광림아트센터(서울), 대가야문화누리(고령군) 등에서 공연을 가지며 많은 관객에게 호평 받았던 프로그램이었다.

달서구민합창단 100여 명의

감동적인 피날레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는 다채로운 구성과 흥미 있는 해설로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기존 프로그램에 달서구민합창단 100여 명과 함께하는 협연곡을 추가하면서 더욱 풍성한 무대를 선보였다. 사전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 오랜 준비 기간을 거친 달서구민합창단은 등장부터 특별하였다. 무대 뒤쪽 반사판이 올라가면서 열을 맞춘 100여 명의 합창단이 전체 모습을 드러낸 순간 객석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고, 대구의 새 시대를 여는 '달서구패밀리' 등 대구시 신청사 유치 축하의 의미를 담은 레퍼토리를 협연하면서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으며 신년음악회의 피날레를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특별했던 2020 신년음악회는 달서구민들의 큰 관심과 호응 덕분에 성황리에 막을 내릴 수 있었다. 웃는얼굴아트센터는 7월 본격적인 공연의 시작에 앞서 공연장 방역 모의훈련을 진행하는 등 안전한 공연 관람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관객들이 걱정 없이 공연장을 찾아 공연을 통한 웃음과 행복을 즐길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기대한다.



가족과 함께 마음의 거리는 가깝게

글·사진
박영빈 달서가족문화센터
운영지원팀장

"겨울학기 오늘부터 휴강입니다." "휴강을 잠정 연장합니다." "봄학기 개강을 취소합니다" 늦은 겨울 2월의 어느 날. 찬바람과 함께 대구를 찾아온 불청객이 있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급작스럽게 늘어난 감염자 수로 인해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무기한 휴강이라는 특단의 조치가 내려졌다. 뜻하지 않게 휴강을 맞게 된 이후 6월이 되어서야 준비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었다.

외출이나 모임이 제한된 상황에서 뜻하지 않게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다. 답답함과 우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한편, 모처럼 가족과 함께 모여 먹은 저녁 메뉴를 SNS로 공유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집에서 지내는 동안 가족과 함께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목소리도 들렸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가족의 건강을 염려하고 서로를 챙기며 보살피게 되었다.

달서가족문화센터 또한 한층 더 깊은 고민 속에서 2020년 '가족'을 생각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족아카데미와 가족문화광장을 준비하였다. 가족아카데미는 가족의 가치 확산 및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한 과정으로 특강 프로그램 확대 개편을 통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가족문화광장은 가족 유대 관계 강화를 위한 체험 과정으로 야외무대와 소공연장을 적극 활용한 공연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한다.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한 가족아카데미

특별 초청 강연

올해는 '즐거운 나의 집(家)'을 주제로 분야별 특강을 개최한다. 2020년 상반기에는 최인준 자라다 남아미술연구소 대표의 '내 아들이 문제인가'(6월), 서민 단국대 의대 가생충학과 교수의 '가족 건강 관찰은가'(7월)에 이어 8월에 국내 최초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의 '우리 아이 안전한가'가 열릴 예정이다.

- '우리 아이 안전한가' 20.8.21.10:30
이수정 경기대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교수 1인 5천원

부모 학교

우리는 부모가 되기 전에 '부모는 이래야 한다'는 부모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 것이 맞는지, 잘하고는 있는지 고민스러울 때가 많다. 이번 부모학교를 통하여 그 역할을 함께 배워보고자 한다. 특히 두 과정 모두 4주차에 쿠킹실에서 점심을 함께 만들어 먹음으로써 '식구(食口)'의 의미를 더하고자 하였다.

- 부모학교 I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들의 고민'
4주 과정 그룹 수업
- 부모학교 II '엄마와 아빠 역할 균형 맞추기'
부모와 초등 자녀를 포함 10가족 대상

가족 심리 테라피

테라피는 일반적인 치료법이 아닌 다양한 종류를 활용한 심리 치료법이다. 그 '종류'는 참가자의 의사를 표현하는 도구로 활용되며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한 심리 치료로 쓰인다. 특히 올해는 전년도와 다르게 1일에서 4주 과정으로 기간을 늘려 진행함으로써 단편적인 경험에서 벗어나 변화의 과정을 통한 실질적인 회복 효과를 기대한다.

- 가족 아트 테라피: 미술 창작 활동을 통한 심리 진단 및 해석
- 가족 뮤직 테라피: 음악 감상 및 율동을 통한 신체-심리-정서 통합



가족 유대 관계 강화의 가족문화광장

가족 콘서트

센터 내 야외무대와 소공연장을 적극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가족 단위가 참여할 만한 공연을 구성하였다. 정원콘서트, 효도콘서트 등 다양한 주제의 공연으로 8월에는 SP. 아르떼가 클래식, 재즈, 국악퓨전 등 장르를 넘나드는 폭넓은 연주를 들려줌으로써 그동안 쌓인 피로를 풀어 줄 여름의 청량제가 될 것이다.

- '한 여름 밤의 결혼 콘서트' 20.8.26. 19:30
SP.아르떼 1인 5천원

가족 1일 체험

온 가족이 참여하는 만들기 실습 과정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통하여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당일 사진 촬영을 대신해 줌으로써 추억의 의미를 더하였다. 6월과 7월 매주 토요일 오전에 진행된 1일 체험은 총 5개 과정으로 모두 정원 마감하였다. 특히 주말 오전 아빠들의 참여가 돋보이는 프로그램이었다.

- 쿠킹 과정: 가족 브런치-도시락-생일 케이크 만들기
- 일반 과정: 우리집 플라워 인테리어, 가족 팝아트 그림 그리기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고, 1m 이상 객석 간격을 유지함으로써 소공연장 행사 정원을 축소 운영하였다. 하반기도 마찬가지로 방역과 소독 등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운영하여 그 누구보다 먼저 '가족'을 생각하고자 한다.

글·사진 김민경, 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 팀장

‘내일(Job)을 만나다’

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역 내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들이 나를 찾는 시간을 통하여 자신감 향상과 역량 강화 기회를 갖고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집단상담프로그램, ‘내일(job)을 만나다’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직 희망 여성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주저 말고 문을 두드려 주세요 _집단상담 프로그램 ‘내일(Job)을 만나다’

소규모 집합 교육으로 진행되는 ‘내일(Job)을 만나다’는 취업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의지 및 자신감을 향상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수료생들의 만족도가 높아 권유를 통해 센터를 찾는 구직자가 많다. 2020년에는 MBTI 성격검사를 도입해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성공적인 취업을 이끌 수 있도록 구성했다. 취업의 입문 단계라 할 수 있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여성들이 희망을 발견하고 새로운 시작의 첫발을 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다할 것이다.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요 _기업환경개선 프로젝트

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구직자뿐만 아니라 구인기업을 대상으로 여성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격을 갖춘 기업 가운데 심사를 거쳐 여성 화장실·휴게실·수유실 등 시설 환경 개선 창업기업의 초기 세팅을 위한 물품 등 환경 개선비의 70% 한도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2019년 삼보플라워(송현동)와 카페봄봄(유천점)이 지원을 받았고, 지속적으로 여성 친화적 환경과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현재 2020년 지원 대상 기업을 모집 중이다. 여성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일자리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

-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남로 137(달서가족문화센터 3층)
- 상담/문의 053-219-2019
- 홈페이지 <http://www.dscf.or.kr>





엘리트발레컴퍼니의 <돈키호테> 공연의 한 장면

24시간 열려 있는 웃는얼굴아트센터

글·사진
허정무, 웃는얼굴아트센터 공연기획팀

우리나라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어
느덧 다섯 달이 지났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수준이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되었
고, 웃는얼굴아트센터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은 휴관에 들어갔다. '사회적 거리두
기'를 시행하면서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
어 버렸다.

슬기로운
문화생활



플레이스트의 낭독극 <내가 걱정되니까>

전 세계를 덮치고 공연계를 잠식한 코로나19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공연계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에 빠졌다. 웃는얼굴 아트센터는 장기간 활동이 중지되어 어려움에 처한 지역 예술인을 지원하고 침체되어 있는 지역 예술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올 4월 DSAC 대구예술인지원프로젝트 「예술인, 희망in 달서」 공모를 진행하였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2주간에 걸쳐 페스티벌 형태로 선보이는 「예술인, 희망in 달서」를 통해 지역 예술인들을 지원함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연을 선보이면서 정신적인 위로를 전하고 꿈과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문화예술의 긍정적 역할을 기대했던 것이다. 하지만 공연이 더욱 절실한 시기인 지금 찾아들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 무관중 공연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즐기고 싶을 때 즐기는 슬기로운 문화생활 지역예술단체들이 선보이는 24편의 공연과 신선한 인터뷰

DSAC 예술인지원프로젝트 「예술인, 희망in 달서」기 영상 제작으로 결정되면서 공모에서 선정된 지역예술단체 17팀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었던 웃는얼굴아트센터 상반기 기획공연 7작품들도 영상으로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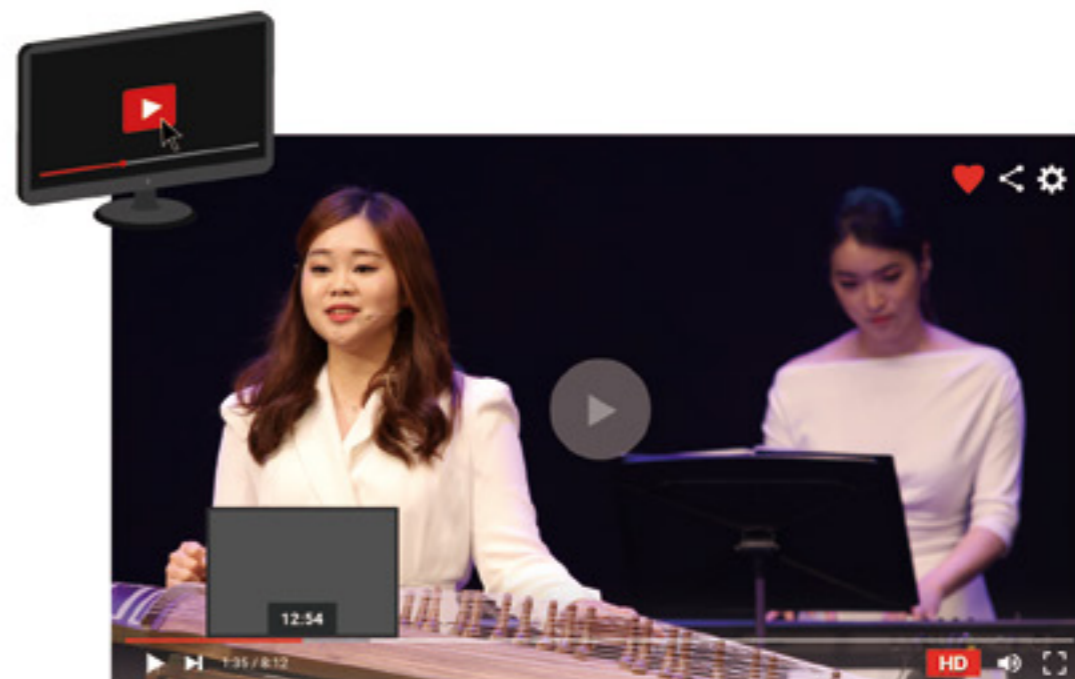
이번 공연 모두 관중 없이 사전 녹화되었다. 여러 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다양한 각도에서 무대 위 출연진의 움직임을 잡아냈다. 많게는 하루에 3작품을 찍고 며칠 뒤 업로드 해야 하는 강행군의 연속이었지만 더 좋은 장면과 사운드를 위해 같은 장면을 여러 번 촬영하는 등 출연진과 스태프 모두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였다.



Online-문화가 있는 날, 노래하는 가야금 놀다가



관객 대신 객석을 차지한 카메라



웃는얼굴아트센터의 공연 영상은 [슬기로운 문화생활]이라는 타이틀로 대구 시민들에게 소개되었다. 5월 21일-지역의 부부 성악가들의 친숙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부의 날 기념공연> 공연을 시작으로 매일 정오 '웃는얼굴아트센터 유튜브 채널'에 하루 한 작품의 공연이 업로드 되었고, 6월 13일-<성악가 김원준의 가곡정원>을 마지막으로 24편의 작품이 모두 업로드 되었다.

어린이뮤지컬 <피터팬>을 비롯해서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음악극 <피터와 늑대>, 출연 예정 교육목적극 <나가 걱정되니까>, 시대별 우리 가곡을 알아보는 <성악가 김원준의 가곡정원> 등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작품들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연극 <여행>, 잊혀 가는 우리 음악을 들려주는 개성 가득한 퓨전 국악 단체들의 공연들과 화려한 퍼포먼스로 시청자의 관심을 모은 무용 작품들, 자신만의 색이 담긴 자작곡을 들려주는 밴드 콘서트, 해설이 있어 쉽게 접할 수 있는 클래식 공연들까지 다양한 장르의 다채로운 콘텐츠들로 꾸며졌다.

그중 백미는 단체들의 새로운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인터뷰 영상

과 개성 있는 섬네일이다. 출연 단체들은 공연 전후 인터뷰를 통해 자신들을 소개하고 앞으로 보여줄 공연을 이야기하는데, 웃음 가득한 인터뷰 영상을 통해 예술단체들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어 많은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워트 있는 영상 제목과 개성 가득한 섬네일도 화제였다. 빠른 일정 때문에 촬영 기간 동안 매일 밤늦게 인터뷰 영상을 편집하고 이미지를 만드느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친숙한 인터뷰 영상과 재미있는 이미지로 온라인 공연에서 느껴질 수 있는 거리감을 좁힐 수 있었고, 극장 온라인 공연과의 차별화 포인트가 되었다.

웃는얼굴아트센터는 [슬기로운 문화생활]이라는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공연예술계에 활기를 더하고 공연 관람이 어려운 관객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다. 처음 시도하는 영상 제작 프로젝트라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Show Must Go On'이라는 취지에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슬기로운 문화생활]을 아직 접해보지 못했다면, 유튜브에 웃는얼굴아트센터를 검색해보길 바란다.

세계로의 동행 탁월한 도약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코리아 윈드 필하모니>



대구문화재단에서 공모하는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된 <코리아 윈드 필하모니>는 2020년, 달서문화재단 웃는얼굴아트센터에 상주하게 됐다. 탁월한 동행을 넘어 더 큰 세계로의 도약이 기대된다.

새로운 윈드오케스트라의 등장

2011년 10월 울산시립교향악단 수석단원으로 활동하는 한만욱을 중심으로 대구·경북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젊고 실력 있는 관악 연주자들이 뜻을 모아 <코리아 윈드 필하모니>라는 윈드오케스트라를 창단하였다. 대구를 넘어 세계적인 관악전문 연주단체가 되겠다는 뜻이다.

대표 한만욱을 비롯한 50여 명의 단원 대부분은 현재 국내 유수의 교향악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고의 실력파 연주자들이며, 지금까지 여덟 차례의 정기연주회뿐만 아니라 다수의 기획연주회, 초청연주회 등 크고 작은 연주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연주력을 입증하였다.

특히 매 정기연주회마다 지휘자 이강일, 하라다 겐키치, 백진현, 서희태, 이동신, 신병기 등을 비롯한 협연자 김봉소리, 우나이 우레초, 세르게이 타라조프, 알렉 쉬친, 임효선, 이화영, 김동섭, 김이정, 한경진 등 국내외 최고의 지휘자와 연주자들을 초청하여 세계 초연, 국내 초연으로 새로운 시도를 모색, 연구하는 자세를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6년 11월에 개최된 '제5회 정기연주회'에서는 최정상의 실력을 자랑하는 전문 심포니 오케스트라도 선보일 연주하기 힘들다는 G 말러의 교향곡 제1번 '거인'을 관악합주로는 국내 최초로 연주하며 음악계 안팎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고 많은 이의 관심과 찬사와 한 문에 받는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연주단체로 그 입지를 굳건히 하였다.

2014년도에 대구광역시에서 지정하는 '전문예술법인 단체'에 지정되었으며, 대구광역시교육청 '2014년도 우리마을교육공동체 우수 협력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17~2018년도에는 지역의 4개 학교(원화여고, 대진중학교, 경상중학교, 동원중학교) 관악부

와의 업무협약으로 지역에서 관악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에게 더욱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2019년에는 캄보디아 왕립예술대학 초청으로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초청연주회를 가졌고, 이를 계기로 프놈펜 지역에서 활동하는 관악연주자를 비롯한 학생들에게 연주회 및 마스터클래스를 개최함으로써 배움에 목말라 있는 캄보디아 연주자와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우리 지역 음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웃는얼굴아트센터와의 동행

웃는얼굴아트센터에 상주하게 됨을 계기로 2020년 하반기 여러 연주회를 계획하고 있다. 전쟁에 관한 음악을 연주하는 <더 워 콘서트>(8월 19일), 지역을 대표하는 성악가들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10월 16일), <국악과 함께하는 아색콘서트>(12월 9일) 등 총 3회의 연주가 기획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달서구 관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의 신예 관악연주자들과 함께하는 <라이징스타 콘서트>(8월 8일, 대구콘서트하우스), 대구문화예술회관 기획 <한여름밤의 바캉스 콘서트>(8월 9일), 대구학생문화센터 초청연주회(11월)도 계획되어 있으며, 7월 중 중국 청두에서 개최되는 <청두 국제자매도시청년음악주간> 음악축제에 온라인 방식 해외 초청팀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대중을 압도하는 화려하고 웅장한 음색, 환상적인 무대 연출과 퍼포먼스로 정통 클래식은 물론 영화음악, 뮤지컬, 대중가요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연주로 관객들의 가슴속에 잊지 못할 감동과 환희의 순간을 앞으로도 계속 선사할 것이다.



Arts Academy 웃는얼굴아트센터 예술아카데미

- 슬기로운 여름 생활 -

문의 053-584-8721, 8722

취미특강 Hobby Academy

여름 홈 인테리어
'라탄공예'

일 정 7.25(토 1회, 15시)
수강료 1만원(재료비 2만원)
정원 13명



김은실 강사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
한국라탄공예협회 회원
현 스튜디오브라켓 대표

예술인문특강 Art & Humanities Academy

피아니스트 최훈락의
클래식 세계여행

피아니스트 최훈락의 재치 있는 설명과 함께 각 국가의 특징과 역사적 흐름을 읽으며 음악을 감상하는 클래식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일정 매주 화, 11시
7.21 대륙의 스케일 러시아
7.28 제국의 왈츠 '오스트리아'
8.04 고전의 아름다움 '영국'
8.11 라 마르세예즈 '프랑스'
수강료 3만원(4회)



최훈락 피아니스트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음악대학 졸업, 트로상연 국립음악대학 수료
계명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현 일타(일상) 앙상블 인지도 리더, 앙상블 'M.S.G' 예술감독
주스티엔즈 엔터테인먼트 소속 전문연주자
크로스오버 피아노솔로 <내 마음의 스케치>(2015) 및 <Romance>(2016) 발매

김은경의 영화의 심장소리
스크린의 별, 명배우 시리즈

영화를 가장 빛나게 하는 요소는 배우의 매력 즉 연기 기예술인 것 같습니다. 완성도 높은 영화와 함께 명배우들이 펼치는 연기의 향연과 함께합니다.

일정 14시
7.08 천재적 연기 '더스틴 호프만'
7.15 연기의 신 '다니엘 데이 루이스'
7.22 천의 얼굴 '매릴 스트립'
8.05 만인의 연인 '줄리아 로버츠'
8.12 연기의 대명사 '알 파치노'
8.19 매혹적인 연기 '골렌 클로즈'
수강료 4만원(6회)



김은경 시인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매일신문 신춘문예 동시 당선
계간지 <시선> 신인상 당선
현재 영남일보 영화칼럼, 현대모비스 매거진
월간(월간) 문화센터 및 도서관
'영화인문학강의'
저서 <영화의 심장소리 1, 2>
<사랑의 방식> 외 다수

미술로 떠나는 세계여행
'영국 런던'

'해리포터', '셜록홈즈', '켓츠' 등 우리에게 익숙한 문학, 뮤지컬, 미술 등 다양한 문화예술의 중심지인 영국 런던 속으로 여행을 떠나 봅니다.

일정 매주 목, 10시
7.02 유럽 회화 컬렉션 런던 내셔널 갤러리
7.16 진정한 영국 미술 '테이트 브리튼'
7.30 런던의 작은 보석함 '코틀드 갤러리'
8.13 오늘의 영국을 만나다 '테이트 모던과 사치 갤러리'
수강료 3만원(4회)



서희주 비영리 전시공간 싹 디렉터, [b]racket 매거진 한국어 필진

영남대학교 미학미술사학과 석사, 철학과 박사
영남대 금오공대 출강

미술평론가 김영동의
유럽미술관 여행과 서양미술사

서양미술사에서 한 획을 그은 명작을 소장하고 있는 미술관들을 둘러보며 유럽 구석구석 직접 보기 힘든 다양한 컬렉션과 특별전을 살펴봅니다.

일정 매주 금, 10시
7.03 프랑스 '릴 미술관'
7.17 프랑스 '보르도 미술관'
7.31 독일 하노버 '스프링클 미술관'
8.14 핀란드 '국립박물관'
수강료 3만원(4회)



김영동 미술평론가

영남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 수료, 매일신문사 편집미술부 차장 역임
영남대 경북대 출강
현 대구문화재단이사
2015 대구아트스퀘어-창년미술프로젝트 예술감독
저서 <근대의 아름다움> 외

순간의 기록
드로잉으로 떠나는 여행 '지구여행기'

리모 작가의 드로잉 작품을 감상하며 어느새 여행지에 서있는 듯 펼쳐지는 생생한 풍경으로 일상에 지친 마음을 치유해보시길 바랍니다.

일정 매주 월, 14시
7.27 울릉 드로잉
8.10 그림으로 기록한 북유럽 4개국
수강료 2만원(2회)



리모 여행작가, 프리랜서일러스트레이터

달서문화재단 동행 드로잉 강사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연세대학교 미려교육원 여행드로잉 강사
2018 대구 여행스케치 공모전 심사위원